

제주지역 유교 지식(知識)·문화(文化)의 수용 양상과 ‘제주학풍(濟州學風)’

주자학적 예교론(禮教論)과 사림과 학풍의 유입을 중심으로

김학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조교수, 고전번역학·조선시대사 전공
ksoya@aks.ac.kr

- I. 머리말
 - II. 조선초 제주지역 유교 지식·문화의 발양과 그 갈래
 - III. 사림정권의 출범과 주자학풍(朱子學風)의 강화:
 굴림서원(橋林書院) 건립 및 원향론을 중심으로
 - IV. 17세기 이후 기호(畿湖)·영남학풍(嶺南學風)의 이원적 수용과 그 전개
 - V. 맺음말
-

이 논문은 2019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기초 및 중점연구 공동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입(AKSR2019-C08).

I. 머리말

이 글은 조선시대 제주지역의 문화사를 유교적 지식·문화의 갈래와 학풍의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 검토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제주는 조선왕조 최남단에 위치한 군현으로 제주목과 정의·대정현 등 1목(牧) 2현(縣)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해도라는 지역적 특성은 영토상의 변방을 넘어 유교적 지식 또는 문화의 보급 및 확산 속도에 있어서도 지연성을 수반하는 이유가 되었다. 여기에는 여타 지역에 비해 토착성이 훨씬 강고했던 사회문화적 성향 또한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은 주자학(朱子學)을 통치 이념으로 삼은 중앙집권적 양반관료제 국가였다. '중앙집권'은 영토에 대한 이념·정치·행정적 통제를 넘어 사회·학술·문화적 균질화를 추구하는 속성을 지녔는데, 제주 또한 중앙 정부의 이런 방침으로부터 예외일 수 없었다. 특히 후자는 문교(文教)·예교(禮敎)로 일컬어지는 교화론(教化論)의 틀 속에서 부단하게 추진되었는데, 그런 정부(政務) 수행의 정점에 존재했던 것은 중앙에서 파견한 관료였다. 이 점에서 조선의 관료, 특히 지방관은 주자학이라는 국가 통치 이념의 보급자, 행정적 통제·관리자, 사회경제적 보호자인 동시에 지식과 문화의 전파 및 육성자였다.

한편 제주는 왕래 및 이탈이 어려운 절해(絶海)의 특성으로 인해 대표적 유형처(流刑處)로 활용되었다. 특히 정변 등에 연루된 중죄인의 유형(流刑)이 매우 빈번했는데, 이들 유배인들의 상당수는 가학(家學) 또는 사우(師友) 관계를 통해 양질의 교육을 받아 출사한 뒤 중앙 정부에서 고관을 지낸 엘리트 유교 지식인들이었다.

제주의 유교 지식·문화는 지방관으로 파견된 관료의 공적 직무 수행과 유배 지식인의 사적 활동을 통해 보급·확산·정착의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

의 문화적 토양으로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고 또한 유교적 지식·문화의 보급 및 확산을 주도하는 인적 매개로서 ‘관료’와 ‘유배지식인’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고의 또 다른 주안점은 지식·문화의 계통과 갈래이다. 조선의 통치 이념은 주자학이다. 그 주자학은 16세기 이후 조광조(趙光祖)·김정(金淨)·김안국(金安國)·서경덕(徐敬德)·성운(成運)·조식(曹植)·이황(李滉)·이이(李瑀)·성혼(成渾) 등의 학자들에 의해 이론적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16세기 중반에 이르면 서경덕의 화담학파(花潭學派), 조식의 남명학파(南冥學派), 이황의 퇴계학파(退溪學派), 성혼의 우계학파(牛溪學派), 이이의 율곡학파(栗谷學派) 등 크게 5개 학파로 분화하게 된다. 제주의 유교 지식·문화 또한 해당 지방관 및 유배지식인이 속한 학파 및 정파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유교적 지식·문화의 전파 및 보급을 주도했던 인간집단으로서의 ‘지방관’과 ‘유배지식인’, 주자학적 지식·문화의 갈래로서 ‘기호학’과 ‘퇴계학’이 본고를 관통하는 키워드이다. 여기에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존재는 제주 현지의 유자, 즉 주자학을 학습한 지식인들이다. 이들은 15세기 이래 관료에 대한 공적 협찬(協贊)과 유배지식인에 대한 사적 종유(從遊)를 통해 상보성을 유지하며 제주지역의 문명성을 고양시켜 왔다. 18세기 이후가 되면 하나의 문파(門派)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 다수의 학자가 육성되어 지식 자급(自給)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질 수 있었던 것이다. 본고에서 관료 및 유배지식인의 활동을 다루면서 그들의 핵심 파트너 역할을 했던 현지 지식의 존재 및 역할에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II. 조선초 제주지역 유교적 지식·문화의 발양과 그 갈래:

15-16세기 사림계 관료 및 유배지식인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제주지역 유교 지식·문화의 양성(釀成)을 촉진한 양대 축은 중앙에서 파견한 관료·목사·현감·관관 등 및 유배지식인이었다. 이런 정황은 ‘제주오현(濟州五賢)’으로 일컬어지며 제주의 수원인 굴림서원에 제향된 김정(金淨; 流配)·송인수(宋麟壽; 牧使)·김상헌(金尙憲; 御史)·정온(鄭蘊; 流配)·송시열(宋時烈; 流配)의 인적 성격에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제주에 파견된 관료는 제주목사를 비롯하여 정의현감(旌義縣監), 대정현감(大靜縣監) 등 3원(員)이었으며, 가장 큰 역할과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제주목사였다. ‘관풍안(觀風案)’을 분석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제주목사를 지낸 인물은 279명이었다.¹ 제주목사는 당상관인 정3품 통정대부가 임명되는 자리였고, 문관(45%)과 무관(50%)이 대등한 비중으로 임명되었다.

유교, 특히 주자학의 정착과 지식의 확충에 영향을 미친 인물은 문신 출신의 목사였다. 그 역할 및 존재감이 구체적으로 포착되는 것은 문치(文治)에 바탕한 우문정치(右文政治)가 궤도에 오르는 성종 연간이었고, 그 상징적인 인물은 1470년(성종 1)부터 1473년까지 약 3년간 목사로 재임했던 이약동(李約東, 1416-1493)이었다.

김숙자(金叔滋)의 문인으로 김종직(金宗直)·조위(曹偉) 등과 교유가 깊었던 그는 정몽주(鄭夢周) ⇨ 길재(吉再) ⇨ 김숙자(金叔滋)로 이어지는 사람과 학통을 계승한 학자·관료였다. 19세기 노론계 학자 홍직필(洪直弼, 1776-

1 김영란, 「조선시대 濟州牧使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청구 논문 1차 발표 요지(한국학중앙연구원 문형관 B107호, 2019.11.07).

1852)은 경상도 김산 소재 이약동 ‘유허비(遺墟碑)’에서 그의 학행을 이렇게 평가했다.

선생은 강호(江湖; 金叔滋) 선생을 스승으로 섬겨 김종직·조위와 도의와 덕업으로 교계를 맺고 포은(鄭夢周)과 아은(吉再)의 유서(遺緒)를 연찬하였으며, 행의(行誼)·치적(治績)·문장(文章)으로 유림의 영수가 되었다.²

목사 부임시 강희맹(姜希孟)의 증시에는 선치(善治) 수령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피력되어 있었는데³, 실제 그는 아전들의 폐단을 엄단하고 공물의 수량을 줄이는 등 구휼을 개선하고 실정에 맞는 정치를 베풀었다. 말채찍조차도 도물(島物), 즉 섬의 물건이라는 이유에서 관루(官樓)에 걸어둔 것이라든지 수행원들이 몰래 실어둔 갑옷을 바다에 던진 일화는 공사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청렴을 치자(治者)의 핵심 덕목으로 여겼던 사람과 관료의 처관(處官) 자세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⁴ 이러한 이약동의 임관 자세는 그 자체로 치화(治化) 또는 교화행위(教化行爲)로 각인되는 의미를 지녔고, 그의 목사 재임은 개인적 치적을 넘어 사람과 학풍이 제주에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목민(牧民)들이 그의 교화를 기리기 위해 생사(生祠)를 건립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생사는 후일 이약동이 귤림서원(橘林書院) 별사(別祠)에 제향되는 단초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2 洪直弼, 『梅山集』 卷34, 〈金山老村李先生遺墟碑〉. “先生服事金江湖先生 與金佔畢曹梅溪相契 以道義德業 鑽圃治遺緒 行治文章 爲儒林領袖”

3 姜希孟, 『私淑齋集』 卷2, 〈送李節制之濟州 李即平靖公約東也 此詩得於平靖子孫家 故附錄之〉. “海上青山一髮紆 耽羅從古入輿圖 胸中最試元戎策 腰下仍懸太守符 職貢有包耽種橘 官場多馬審攻駒 送君自愧磨驢拙 京洛秋風酒一壺”

4 洪直弼, 『梅山集』 卷34, 〈金山老村李先生遺墟碑〉. “先生早悟績學 博通經籍 立朝盡忠諫之言 匡濟之策 自耽羅歸 只持一鞭 既而曰此亦島物 懸諸官樓 歲久鞭落 邑人畫其跡以寓慕 船行遇颶風幾危 搜幕賓潛賈一甲投海 波定利涉 州人名其所曰投甲淵 立生祠祀之”

이로부터 약 50년이 지난 1520년(중종 15) 제주는 지역사회의 문풍 진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또 한 사람의 지식인을 맞게 된다. 이른바 기묘명현(己卯名賢)으로 일컬어지는 김정(金淨, 1486-1521)이다. 김정은 지치(至治)를 추구했던 조광조와 정치적 공동 보조를 취하다 1519년 기묘사화에 피화되어 금산(錦山)으로 유배되었고, 1520년 진도를 거쳐 제주로 이배되었다가 이듬해인 1521년 10월 사사되었다. 그의 재도(在島) 기간은 1년 2개월에 지나지 않았고, 또 안치 죄인으로서 행동의 상당한 제약은 따랐지만 짧은 기간 동안 그는 주자학적 지식과 예법을 이식함으로써 제주의 유교문화 확산에 기여하게 된다. 『충암연보(冲庵年譜)』에는 그가 제주에 안치된 지 열흘쯤 지나 촌노(村老)와 연구(聯句)를 짓는 상황이 묘사되어 있는데⁵, 이는 김정이 제주와의 정서적 간격을 좁혀가는 극적(劇的) 장면으로 포착된다.

제주의 풍토 개선에 대한 김정의 관심은 예교론(禮教論)으로 단초를 열었다.⁶ 소격서(昭格署)의 혁파를 주장했던 기묘사림의 시각에서 볼 때, 제주 일원에 만연했던 음사(淫祀)는 척결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그는 주자학적 상장(喪葬) 예법(禮法)의 주입을 통해 도속(島俗)의 근본적인 개선을 시도했던 것이다.

제주의 습속은 음사(淫祀)를 숭상한 탓에 예법에 어두웠다. 선생이 '상장제의

-
- 5 金淨, 『冲庵集』 卷5, 「年譜」〈庚辰〉(1520). “按濟州日記曰 先生到謫所十許日 似夢非夢 有白衣老人來致談曰 與子相見久矣 不知文章之如何 願賞一篇 先生答以流落天涯 焉有一字 隨來者 老人欲以韻試 先生不肯 老人曰可與聯句 卽呼首句以促之 先生不得已 勉應之 至琴 從膝上鳴 老人驚曰 詩格依舊 吟玩良久 因忽不見云 詩曰 積雨初晴後[老人] 新涼樹梢生[先生] 夜深幽戶靜[老人] 月近小窓明[先生] 詩自枕邊得[老人] 琴從膝上鳴[先生] 此間清意味[老人] 難與俗人評[先生]”
- 6 김정의 예교론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전지선, 「조선전기 冲庵 金淨의 제주사회 인식과 교화활동」,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3) 참조.

(喪葬祭儀)를 서술하여 인도하고 가르치자 백성들의 풍속이 크게 바뀌었다. 섬에서 문교(文教)가 흥기된 것은 이때부터이다.⁷

그가 주자학적 문교·예교의 관점에서 풍속의 변화를 모색했던 것은 척박했던 지식·문화적 환경, 이해(利害)에 얽매어 권력과의 결탁을 당연시했던 인심과 관련이 깊었다. 김정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제주의 풍물을 적은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에서 바다 먼 곳 지방에 대한 첫인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토착인 가운데 생원 김양필(金良弼) 외에는 글을 아는 이가 거의 없고, 인심이 거칠어서 품관(品官)에서 미천한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조정의 권귀(權貴)와 결탁하고 있었다.⁸

김정은 지식인의 부재, 권력가와의 고질적인 체결 양상을 문교(文教)와 예교(禮敎)의 결핍 현상으로 진단했던 것 같고, 그 처방책으로 모색된 것이 전술한 '상장제의(喪葬祭儀)'의 보급이었다. 지식인의 부재는 지적(知的) 상담(相談)의 대상이 절실했던 김정에게 작지 않은 고충거리였던 것 같고, 그나마 목사·판관 등 지방관을 배행했던 자제들을 통해 그 고충을 일시 해소할 수 있을 뿐이었다. 여러 문헌에 따르면, 김정이 직면했던 제주의 지식·문화적 환경은 예상보다 훨씬 척박했던 것으로 착상된다.

나와 바다낚시를 함께 한 이는 이곳 백성이 아니면 방생(方生)이었다. 방생의

7 金淨, 『冲庵集』 卷5, 「年譜」〈庚辰〉(1520). “濟州之俗 尙淫祀而朦於禮 先生述喪葬祭儀以導之 氓俗一變 島中文教之興始此”

8 金淨, 『冲庵集』 卷4, 〈濟州風土錄〉. “土人生員金良弼外 識文者絶少 人心鹵莽 自品官下至微者 皆交結朝貴”

이름은 순익(舜翼)인데, 판관의 사위이다. 유학(儒學)을 공부하였으며, 기묘년(1519)에 축출된 우리들[趙光祖 등 己卯士林] 일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매우 많았다. [...] 해도에서 이 사람을 만났으니 어찌 다행스럽지 않겠는가?⁹

김정이 제주의 풍토를 접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것은 주자학적 수신(修身) 및 교화론(教化論)의 요체인 예의(禮儀) 및 염치의식(廉恥意識)의 부재였다.

매일 고기잡이를 업으로 삼고, 사소하고 하찮은 것에도 뇌물이 오감에도 예의와 염치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다. 강함으로써 약함을 제압하고, 사나움으로써 유순함을 위협한다. 군왕의 명조차도 섬에 미치지 않은 탓에 관원의 탐학이 육한(陸閑)과 같아도 괴이하게 여기지 않는다. [...] 만약 학문(學文)을 가르쳐 그 마음이 열리게 하지 못한다면 무수한 세월이 지나도 풍속이 좋게 바뀔 것이라 기약하기 어렵다.¹⁰

이에 그는 교화(教化), 즉 예교와 문교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지만 1521년 사사됨으로써¹¹ 그 뜻은 좌절되었다.

한편 김정이 ‘제주풍토록’에서 지역의 유식자(有識者)로 인정했던 김양필(金良弼)은 어떤 사람인가? 1510년 생원시에 입격한 그는 문장에 능하고 글씨에도 뛰어났던 16세기 초중반 제주의 대표적 지식인이었다.

9 金淨, 『冲庵集』 卷4, 〈濟州風土錄〉. “且所借非土人即方生 生名舜翼 判官之妻媿 學儒 於吾輩事 頗聞風 [...] 海外遇斯人 豈非幸甚歎”

10 金淨, 『冲庵集』 卷4, 〈濟州風土錄〉. “日各以漁利爲事 毫縷細故 皆有贈賂 不知廉義爲何事 以強制弱 以暴劫仁 不下君示 以故官員貪如陸閑 不以爲怪 [...] 若不教以學文 以開其心 則永無移風之期”

11 金淨은 의금부도사가 賜死刑을 집행할 때 ‘내 평소 주량이 커서 鷓酒 한 병으로는 내 목숨이 끊어지게 할 수 없을 것이니 소주를 많이 준비해 두고 기다리라.’ 하고는 음독한 상태에서 집에 보낼 편지와 絶命詞를 쓰고 나서 소주를 마시고 죽음을 맞았다고 한다(尹鑄, 『白湖全書』 卷33, 〈辛巳孟冬書〉).

문장에 능하고 글씨를 잘 썼으며, 생원시에도 입격했다. 명륜당에 그치지은 시가 현액(懸額)되어 있고, 주자의 ‘백록동규(白鹿洞規)’도 그가 쓴 것이다. 충암(沖庵)의 풍토록(風土錄)에도 김양필을 칭송하는 대목이 있다.¹²

김정의 『충암집(沖庵集)』에서는 두 사람이 사제관계를 맺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지만 김정이 유도(留島)했던 1년 2개월 동안 김정과 김양필이 사제에 준하는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제주향교 명륜당에 시액(詩額)이 걸리고¹³, 주자학적 교육 지침인 ‘백록동규(白鹿洞規)’를 직접 쓸 수 있었던 것은 김정과의 학연을 통해 강화된 학자적 중량감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런 자질과 존재감으로 인해 그는 1534년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문교를 크게 진작시키게 되는 심연원(沈連源)의 핵심 조력자로 부상하게 된다.

김양필 못지않게 김정이 주목했던 인물은 문세걸(文世傑)이었다. 그는 34세로 단명함으로써 그 존재가 크게 드러나지 못했지만 김정이 애도시에서 ‘탐라의 준걸(耽羅之傑)’로 평가해 마지않았던 인물이다.¹⁴ 무엇보다 김정이 그를 ‘이물(異物)’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¹⁵ 탁월한 자질의 소유자였음이 분명하다. 이상의 서술을 종합할 때, 김정은 1520년 8월에서 1521년 10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제주에 안치된 상태에서 현지인과의 학연을 통해 문인을 양성했는데, 그 대표적 문인이 김양필·문세걸이었던 것이다. 특히 김양필은 16세기 초중반 제주의 지식·문화적 토대 구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12 李元鎮, 『耽羅誌』, 「人物」, 〈金良弼〉.

13 李元鎮, 『耽羅誌』, 「學校」, 〈明倫堂〉 ‘金良弼詩’.

14 金淨, 『沖庵集』 卷3, 〈悼文士豪 士豪名世傑 耽羅之傑也 年三十四沒 吾之寄哀 情見乎詩〉.

15 金淨, 『沖庵集』 卷3, 〈悼文士豪〉. “君今爲異物 何地開心曲 耽羅有斯人 嗚呼云不淑”

사람과 학풍의 유입 및 치화(治化) 기반 조성 양상(1)

이약동(李約東): 김숙자 문인
[목사(1470-73)_주자학적 치도(治道) 기반 확립]



김정(金淨): 조광조 종유인
[유배(1520-21)_주자학적 예교(禮敎) 기반 조성]

이약동과 김정에 의해 기반을 다진 주자학적 치도 및 예교 풍토는 1534년 송인수(宋麟壽, 1499-1547)와 심연원(沈連源, 1491-1558)의 목사 부임을 통해 다시 한번 확충의 기회를 맞았다. 송인수는 유충조(柳崇祖)와 함께 중중조의 사유(師儒)로 인식된 윤탁(尹倬)의 문인이었다.¹⁶ 윤탁은 김종직의 문인 주계군(朱溪君) 이심원(李深源)의 제자였으므로 송인수는 김종직(金宗直) ⇨ 이심원(李心源) ⇨ 윤탁(尹倬)으로 이어지는 사람과 학통의 계승자였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조식(曹植)·이언적(李彦迪)·이항(李恒) 등 학계의 명사들과 교류하였으며¹⁷, 조식의 종유인이며 이항의 문인이었던 이정(李楨, 1512-1571)은 송인수가 사천에서 적거할 때 육성한 문인이었다.¹⁸ 송인수가 제주 목사로 부임한 것은 1534년(중종 29) 3월이었는데, 권신 김안로(金安老)를 탄핵한 것에 따른 좌천이었다. 이후 그는 풍토병을 앓는 등 건강상의 이유로 부임한 지 석 달 만에 목사직에서 물러났고, 그해 7월 죄적(罪籍)에 묶여 사천(四川)에 유배되었다. 따라서 그가 제주에 미친 영향이 매우 미미했음에

16 17세기 畿湖學派의 종사 宋時烈은 宋麟壽의 종증손이고, 成渾의 사위이자 문인으로 牛溪學統의 계승자로 인식된 尹煌(1571-1639)은 尹倬의 현손이다. 17세기 중후반 牛溪學統의 계승자로 부상하는 尹拯은 윤황의 손자이다.
17 曹植, 『南冥集』 卷2, 〈書圭菴所贈大學冊衣下 圭菴宋麟壽號〉; 宋麟壽, 『圭菴集』 卷1, 〈奉呈晦齋李復古彦迪 嶺伯行軒求和〉; 宋麟壽, 『圭菴集』 卷1, 〈贈李一齋恒〉.
18 宋麟壽, 『圭菴集』 卷4, 附錄 「年譜」, 〈乙未〉(1535). “縣士李楨 執贄請學于謫所 泗濱海俗尙質買 先生日聚其子弟 教誨不倦 如龜巖李楨 最蒙獎進而成就焉”

도 5현(五賢)의 한 사람으로 칭송될 수 있었던 것은 관료적 청망(淸望)과 학자적 위상 때문이었다.¹⁹

송인수가 3개월의 단기 재임을 통해 자취만 남긴 것에 비해 후임 목사로 부임한 심연원은 1534년(중종 29) 9월부터 1537년(중종 32) 6월까지 약 3년간 재임하며 많은 치적을 남기게 된다. 서울 문벌가의 자제였던 심연원은 생원시에 장원했고, 1522년 문과를 거쳐 1526년에는 문과 중시에도 합격한 엘리트 문신으로 후일 영의정에까지 오르게 된다. 명종비 인순왕후(仁順王后)가 그의 손녀라는 점에서 점차 훈척적(勳戚的) 성향을 지니게 되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본디 그는 김안국(金安國; 金宏弼門人)의 문하에서 사립과 학풍을 수용한 인물이다.

성장해서는 모재(慕齋) 김공(金安國)에게 학업을 질의하며 의리의 강명(講明)에 더욱 힘을 쏟았다. 이 때 모재가 배도(陪都)에서 적전(籍田)을 양정(量定)하고 있었는데, 공은 선생을 중유하는 즐거움에 빠져 한 해가 다 가도록 돌아가지 않고 공부에 열중하여 재식이 크게 진보하여 성문(聲問)이 자자해졌다.²⁰

김굉필의 문인인 김안국은 경세(經世), 특히 교육론에 탁월한 역량을 보인 학자·관료였다.²¹ 아래 박세채(朴世采)의 『남계집(南溪集)』 기사는 김안국의 학자·관료적 역할 및 위상과 관련하여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19 宋麟壽의 氣質·學德·行誼는 문인 李楨(1512-1571)이 지은 '圭庵宋先生贊'에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李楨, 『龜巖集』 卷1, 〈圭庵宋先生贊〉. “先生 氣質淸明 德器淳粹 學問思辨 篤以行之 庶幾於義精仁熟之地矣 在中廟朝 見忤於奸臣金安老 遷謫于泗川縣 僑寓一吏舍 四年不出門外 及安老之誅 羽儀朝著 未及大施之初 爲李岔等所陷 竟遭慘禍 痛哉痛哉 稟質和粹 精金美玉 襟度脫灑 冰壺秋月 篤志力學 窮理居敬 不倚不變 順受其正”).

20 鄭士龍, 『湖陰集』 卷7, 〈世子師青川府院君贈諡忠惠沈公神道碑銘〉. “及長 質業於慕齋金公 益加講明 時慕齋量定籍田于陪都 公樂於從師 竟歲不返 才識大進 聲問藹鬱”

21 李秉然, 『朝鮮前期 畿湖士林派 研究』(一潮閣, 1984).

모재(慕齋; 金安國)는 기묘사화 이후 여주에 퇴거(退居)하여 학도를 가르치며 사문(斯文)을 흥기시키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아 사림의 중망을 입었다. 정유년(1537)에 김안로(金安老)가 패망한 뒤에 비로소 조정으로 돌아와 조광조 등 제현의 억울함을 신원하자 사류들이 크게 의지하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사망하자 조야 모두에서 경앙한 나머지 문묘 종사의 논의가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황이 이언적을 추존하여 김굉필·정여창·조광조 등과 함께 '4현(四賢)'으로 삼게 됨으로써 김안국이 굴욕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지금 선비들 가운데 김안국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이가 별로 없게 되었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²²

비록 김안국은 이황의 이른바 '도통정비론(道統整備論)'에 따라 문묘에 종사되지는 못했지만 학문과 그것의 현실적 적용을 모색했던 16세기 초반을 대표하는 사람계 학자였음은 부인할 수 없고, 그의 학자·관료적 종지(宗旨)를 가장 착실하게 계승한 문인 가운데 한 사람이 곧 심연원이었다. 이 점에서 심연원의 제주목사 부임은 '모재학풍(慕齋學風)'의 해도적(海島的) 확산 및 적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심연원은 목사로 재임하는 동안 정사(政事)의 근본을 교화(教化)에 두고 방어(防禦)·농정(農政) 등을 감독(檢督)하는 가운데 예교 측면에서 배궐례(拜闕禮)·석채례(釋菜禮) 등 예법의 시행에도 엄격했다.²³ 특히 그는 1536년 명륜당을 중수하고 향학당(鄉學堂)을 건립하는 한편 사서(四書)·『고문진보

22 朴世采, 『南溪集』 卷57, 〈記少時所聞〉. “慕齋己卯禍後 退居呂州 教授學徒 以興起斯文爲己任 士望甚重 丁西安老敗後 始得還朝 伸雪靜庵諸賢之冤 大爲善類所依歸 未幾病卒 朝野景仰 凜凜有從祀文廟之議 及退溪推尊晦齋 與寒暄·一盞·靜庵諸賢爲四賢 然後慕齋始屈 今則士子幾不知慕齋爲何人 可歎也已”

23 鄭士龍, 『湖陰集』 卷7, 〈世子師靑川府院君贈諡忠惠沈公神道碑銘〉. “又能不鄙遠俗 躬率以禮 朔望拜闕之儀 春秋釋菜之奠 未嘗告替”; 洪暹, 『忍齋集』 卷3, 〈沈公墓誌銘〉. “以謂海表遐氓 不諳尊君事上之禮 觀瞻足以感化 有教可使無類 朔望 必就闕牌而朝”

『古文眞寶』 등의 학술 서적 간행에도 박차를 가하는 등 교육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이러한 교육 기반의 정비는 자연스럽게 향학열의 고조와 예교문화의 점진적 확산으로 이어졌다.

① 향교를 중수하고 석전제(釋奠祭)를 몸소 주관하였으며, 사서(四書) 및 『고문진보(古文眞寶)』 등을 간행하여 학생들을 교육하자 다스림을 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속(禮俗)이 크게 일어나 문옹(文翁)이 촉(蜀) 땅을 교화시킨 것에 견줄만한 풍화가 있었다.²⁴

② 향교를 크게 수리하고 사서 및 『고문진보』 등의 서적을 간행하여 몽사(蒙士)를 교육하자 백성들 가운데 배움의 길로 나아가려는 자가 많아졌고, 심지어 국학(國學; 成均館) 입학을 청하는 이까지 있었다.²⁵

향교 중수는 수령7사(守令七事)의 하나인 ‘흥학(興學)’의 외양을 띄고 있었지만 이를 통해 심연원이 목포했던 것은 교육의 실질화, 도덕 및 인의(仁義)의 강명을 통한 문교(文教) 및 예교(禮敎)의 탄력적 확산이었다. 그의 이러한 문교·예교진흥론에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도운 사람이 곧 김정(金淨)의 문인으로 당시 제주 교수에 재임하고 있었던 김양필(金良弼)이었던 것이다.²⁶

한편 심연원은 명륜당의 중수에 더하여 교수 이의영(李義英)의 협조를 받아 향교의 부설 교육기관으로서 향학당(鄉學堂)을 새롭게 건립했다.²⁷ 공생(貢生) 및 아동들의 학습처인 향학당은 독립적인 공간 및 시설을 확보하

24 洪暹, 『忍齋集』 卷3, 〈沈公墓誌銘〉. “修鄉校 釋奠必親 鉞梓四書及古文眞寶等書 訓誨學子 爲治未幾 禮俗大興 頗有文翁化蜀之遺風焉”

25 鄭士龍, 『湖陰集』 卷7, 〈世子師青川府院君贈諡忠惠沈公神道碑銘〉. “大修黉舍 梓刊四書古文眞寶等書 課習蒙士 民多嚮學 至有請入國學者”

26 李元鎮, 『耽羅誌』, 「學校」, 〈明倫堂重修序〉(沈連源).

27 李元鎮, 『耽羅誌』, 「學校」, 〈明倫堂重修序〉(沈連源).

지 못하고 주사(州舍) 또는 군아(郡衙)에 부속되어 있다가 이 때에 와서 전용 공간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제주에는 ‘향교(鄕校)와 ‘향학당(鄕學堂)’의 이원적 교육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전자가 국가 공교육 시스템의 제도적 운영이었다면 후자는 ‘제주목 자율형’ 교육인프라로 평가할 수 있다.

심연원은 1536년 가을 명륜당의 중수를 완료할 즈음 그 전말을 기술할 기문의 찬술자로 윤구(尹衢)를 염두했다.²⁸ 심연원의 주변에는 박상(朴祥)·김인후(金麟厚)·송순(宋純) 등 학술과 문장 및 경륜을 갖춘 명사들이 많았음에도 윤구에게 기문을 칭했던 것은 그가 지니고 있었던 학통상의 위치와 무관치 않다.

해남 출신의 윤구(尹衢)는 호남 유학의 종사로 인식되는 최부(崔溥)에게서 연원하는 금남학통(錦南學統)의 계승자였다. 김종직의 문인이었던 최부는 해남·나주를 거점으로 다수의 후학을 양성하며 호남 유학의 토대를 다졌는데, 윤구의 부친 윤효정(尹孝貞)도 금남문인(錦南門人)의 한 사람이었다.²⁹ 특히 윤효정은 최부의 손아래 동서였던 바, 윤구에게 최부는 이모부가 되었다. 척연과 학연의 중첩적인 세의(世誼)로 인해 윤효정가는 금남학통으로서의 연원의식을 강고하게 유지하였다.³⁰

28 李元鎮, 『耽羅誌』, 「學校」, 〈明倫堂重修記〉(尹衢).

29 朴世采의 『東儒師友錄』(卷4)에는 崔溥(錦南)의 문인으로 尹孝貞·林遇春·朴閔·權遇蘭 등 4인을 기재하고 있다. 금남학통은 16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동인계와 서인계로 양분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전자를 대표하는 것이 윤효정 및 윤효정의 손서인 光州李氏 李仲虎 계통이고, 후자를 대표하는 것은 최부의 외손자 柳希春 계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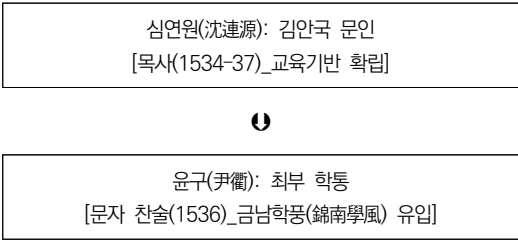
30 崔溥는 딸만 셋을 두었는데, 장녀서 柳成春의 아들이 16세기 호남학계의 거두 柳希春이다. 최부와의 관계에 기준할 때, 尹孝貞과 유희춘은 5촌의 척분이 있었고, 유희춘은 윤구의 조카 尹寬中을 사위로 맞아 척연을 이어갔다. 윤관중은 白振南을 사위로 맞았는데, 백진남은 朴淳과 盧守愼의 문인 白光勳의 아들이다. 윤구의 사위는 李仲虎인데, 그 아들 李潏과 李涪은 崔永慶·金宇顯의 문하를 출입하며 남명학통을 계승했고, 윤구의 아우 尹復의 세 아들은 李滉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퇴계학파로가

윤구(尹衢) 일가의 학통(→(학통)/ㄷ(혈통))

金宗直 → 崔溥 → 尹孝貞 ⇨ ① 尹衢 ⇨ (2傳) ⇨ 尹善道(孤山)
 ⇨ ② 尹復 ⇨ ① 尹剛中[退溪門人]
 ⇨ ② 尹欽中[退溪門人]
 ⇨ ③ 尹端中[退溪門人]

특히 자가(自家)의 학문연원으로 존중했던 최부가 제주와 연관이 깊었던 점도 유념할 대목이다. 최부는 1487년(성종 19) 추쇄경차관(推刷敬差官)으로 제주에 파견된 바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최부는 이듬해인 1488년 친상으로 인해 환가하던 중 풍랑을 만나 표류했고, 이후 명나라를 거쳐 귀환한 뒤 성종의 명에 따라 표류 전말을 기록한 것이 15세기 기행문학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표해록(漂海錄)』이다.³¹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윤구의 ‘명륜당중수기(明倫堂重修記)’ 찬술은 비록 간접적이지만 금남학풍(錦南學風)의 제주 유입의 한 양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사람과 학풍의 유입 및 치화(治化) 기반 조성 양상(2)



지 학통적 외연을 확장하였다.
 31 「錦南先生墓碑文」(拓本_外後孫 羅斗冬撰). “嘗以敬差官往耽羅 奔父喪 漂泊東甌 達于京 至蒙皇帝賜賚異數 及還成廟 獎以華國賜衣 褒之 [...] 漂海錄卽承命撰進者”

Ⅲ. 사림정권의 출범과 주자학풍(朱子學風)의 강화:

굴림서원(橋林書院)의 건립 및 원향론을 중심으로

1. 1578년 ‘충암묘(沖庵廟)’의 건립:

대곡학통(大谷學統)이 기획한 김정(金淨)에 대한 주자학적 기림

제주지역의 주자학적 문풍 형성과 관련하여 주목할 대상은 1578년에 건립된 ‘충암묘(沖庵廟)’이다. 3칸 규모의 충암묘는 묘우(廟宇), 즉 제향 공간만 갖춘 형태로 건립되었다. 따라서 그 격식에 있어 제향 및 강학 공간을 구비했던 서원에 미치지 못했지만 16세기 중후반에 사묘(祠廟)가 건립된 것은 주자학의 확산 속도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컨대, 퇴계학파의 본산으로 일컬어지는 도산서원(陶山書院)의 건립 연도가 1576년임을 고려할 때, 제주지역 원우(院宇) 문화는 그 기원에 있어 경기 및 3남지역과 시기적 격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충암묘는 판관 조인후(趙仁後, 1540-1599)의 주도와 목사 임진(林晉, 1526-1587)의 협찬 속에 출현할 수 있었다. 건묘(建廟)의 명분은 김정이 인의(仁義)를 실천하고 직도(直道)를 행하여 공과 덕을 아우른 학자의 전형으로서 제주의 문풍 진작에도 크게 이바지한 인물이라는데 있었다.³² ‘충암묘’는 제주라는 공간에서 최초로 구현된 주자학적 존현사업이었고, 이로써 김정은 조선시대 제주인의 공적(公的) 기림을 받는 수현(首賢)의 위치를 선점하게 된다.

조인후의 ‘충암묘’ 건립은 흥학을 넘어³³ 선조 즉위 이후 탄력적으로

32 林悌, 『林白湖集』 卷4, 〈濟州金沖庵祠宇新修文〉. “古之祠者有二焉 功可以受報則祠 德可以警世則祠 [...] 況先生居仁由義 德之至矣 立懦廉貪 功亦大矣 功也德也 此可祠乎”

33 조인후는 官奴 1인을 廟直으로 배정하고 향사를 위한 자산을 마련하는 등 제향기능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林悌, 『林白湖集』 卷4, 〈濟州金沖庵祠宇新修文〉). “侯乃復官奴

추진된 사림파의 존현사업(尊賢事業)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었다. 선조의 즉위는 사림정권의 수립으로 이어졌고, 그들에 의해 전개된 존현사업은 조광조 등 기묘사림의 복관 및 현양사업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런 흐름 속에서 조광조는 1568년 영의정에 추증되고, 1570년에는 문정(文正)의 시호가 내리는 가운데 제향처로 능주 죽수서원(竹樹書院, 1570), 양주 도봉서원(道峯書院, 1573)이 건립되었으며, 1585년에는 묘전에 신도비가³⁴ 건립되었다.

김정의 경우는 1545년에 복관되고, 1568년에 문정(文貞)의 시호가 내려졌으며, 1555년 보은 상현서원(象賢書院)을 기점으로 1570년에는 청주 유정서원(有定書院, 莘巷書院의 전신)에 위패가 봉안되었고, 마침내 1578년 적거지인 제주에 ‘충암묘’가 건립된 것이다.

조인후의 학통은 분명하지 않다. 다만 그의 외숙 김귀영(金貴榮, 1520-1593)이 조광조의 문인 윤관(尹寬)의 사위라는 점, 신흠(申欽)의 아우 신감(申鑑)을 사위로 맞은 사실에서³⁵ 사림파에서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즉, 조인후는 정암연원(靜庵淵原)으로 규정할 수 있고, 그 자손들은 기호학과 [특히 牛溪學派]의 일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충암묘’의 건립 취지는 임제(林梯, 1549-1587)가 찬술한 ‘제주김충암사우신수문(濟州金沖庵祠宇新修文)’에 잘 드러나 있다. 이 글에서 임제는 아버지 임진(林晉)을 문안하기 위해 제주에 왔다가 봉안례에 참관했고, 이 과정에서

一人爲廟直 又置穀若干於州校 歲歲取殖於民 而爲奠采之資 令春秋香火不絕 侯之志 可謂勤矣”.

34 ‘靜庵神道碑’의 건립은 사림 차원의 대대적인 尊賢事業으로 기획·추진되었는데, 신도비명의 찬자는 盧守愼, 본문 글씨는 李山海, 頭篆은 金應南이 썼다.

35 申鑑은 宋麟壽의 외손자였는데, 송기수는 찬술한 제주목사 宋麟壽의 종제이다. 또한 그는 金長生·金尙憲 등과 교유가 깊었고, 특히 김장생과는 4촌의 척분이 있었지만 자손들은 牛溪學統을 계승하며 소론계로 활동했다(宋時烈, 『宋子大全』 卷165, 〈刑曹參判申公神道碑銘〉). 이는 형 申欽의 자손들이 소론을 표방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숙종조 소론의 영수 朴世采는 신흠의 외손자이다.

조인후의 부탁을 받고 기문을 찬술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³⁶ 이는 상황의 의도적 설정으로 읽힌다. 추론컨대, 임제의 제주 방문은 ‘충암묘’ 낙성과 기문 찬술을 매개로 한 기획적 방문으로 파악되는데, 그것은 임제의 학통적 위치 때문이었다.

임제는 성운(成運, 1497-1579)의 문인이었다. 성운은 조식(曹植)과 함께 16세기 처사형 학자의 전형으로 일컬어지는 인물로³⁷ 조광조의 문인이었던 성수침(成守琛)과는 재종간이었다. 성운은 형 성우(成遇)가 사회에 희생되자 처향인 보은 삼산(三山)의 종곡(鍾谷; 북실)에 은거하며 학문과 후진양성에 매진하였는데 임제가 바로 그 대표적 문인이었다.³⁸ 성운의 처가 경주김씨는 김정(金淨)과 일족이라는 점에서 김정과 성운 사이에는 척연과 학연이 형성되어 있었고³⁹, 그런 맥락에서 성운은 삼산서원(三山書院; 象賢書院)을 봉심하고 치제한 글에서 김정에 대한 강렬한 계승의식을 천명한 바 있었다.⁴⁰ 조인후가 임제를 위 기문(記文)의 찬술자로 지명한 것은 김정(金淨) ⇨ 성운(成運) ⇨ 임제(林悌)로 이어지는 학통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점에서 충암묘는 조광조에게서 연원하는 대곡학통(大谷學統)의 기획과 조율 속에 출현한 사우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제주지역 학풍의 형성 및 확장과 관련하여 매우 유념할 대목이다.

36 林悌, 『林白湖集』 卷4, 〈濟州金冲庵祠宇新修文〉. “錦城林悌寧親于節制營 獲觀盛事 美侯之志 而且有侯命 故既爲記”

37 신병주, 『南冥學派와 花潭學派 연구』(일지사, 2000).

38 林悌, 『林白湖集』, 〈林白湖集跋〉(林悌撰). “白湖早歲有志于學 負笈從師 尋大谷成先生于鍾山之下受中庸 仍入俗離山 探究義理 累經寒暑 深得先生旨趣 而先生亦不待之以外”

39 成運은 金碧의 사위인데, 김정과 김벽은 4촌간이다. 김정은 기묘사화 당시 도피했던 金湜에게 인편을 띄워 정당한 처신을 촉구한 바 있는데, 그 인편이 김벽의 아들 이자 성운의 처남 金天富였다(尹鑑, 『白湖全書』 卷33, 〈辛巳孟冬書〉).

40 成運, 『大谷集』 卷下, 〈三山書院祭冲庵文〉. “希聖師賢 學如不及 造詣精深 升堂入室 吐辭成文 迺配典謨 宗祀百世 繼在後儒”

2. 17세기 중반 묘우의 이건과 굴림서원(橘林書院)으로의 승격: 퇴계(退溪)·화담학통(花潭學統)의 공조

창건 이후 ‘충암묘’는 보은의 상현서원(象賢書院), 청주의 신흥서원(莘巷書院)과 함께 김정의 대표적 제향처로 기능하다 현종 연간인 1667년(현종 8)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그 변화는 ‘굴림(橘林)’으로의 명호 개정과 서원으로서의 승격, 원입의 구성과 원적(院籍)의 비치 등이었는데, 이를 주도한 인물은 판관 최진남(崔鎭南, 1626-未詳)이었다.

최진남이 판관에 임명되어 임지에 도착한 것은 1665년 5월이었다. 부임 직후 그가 가장 먼저 찾았던 충암묘는 창건 이후 약 90년의 세월이 경과하면서 관리 소홀로 인해 건물은 크게 퇴락해 있었다. 무엇보다 터가 매우 협소하여 학업 및 수양이 이루어지는 장수(藏修)의 공간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그는 이건을 계획하였으나 한동안 적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최진남은 유생 고강(考講) 차 들른 장수당(藏修堂) 일대를 이건의 적합처로 판단하고 1667년 3월 공사를 시작하여 약 한 달 만에 완공을 보게 된다. 이 과정에서 목사 홍우량(洪宇亮, 1608-未詳)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원우를 이기한 최진남은 제기(祭器)·상탁(床卓) 등 제 기물을 정비하는 한편 원호를 ‘굴림(橘林)’으로 개정하게 된다. ‘충암묘’에서 ‘굴림서원’으로의 변화는 명칭의 개정을 넘어 ‘사우(祠宇)’에서 ‘서원(書院)’으로의 승격을 의미하는 획기적인 조처였다.

최진남 재임시의 굴림서원[冲庵廟]의 변화 및 개선 현황

| | |
|---|--------------------------------|
| 1 | 장수(葺修)에 적합한 공간으로의 이건 |
| 2 | '굴림서원(橋林書院)'으로의 개칭 및 승원(陞院) |
| 3 | 묘직(廟直) 등 수호 인력의 상시화 |
| 4 | 원장(院長)·유사(有司) 등 원임 체계 구성 |
| 5 | 원적(院籍)의 작성 및 관리를 통한 교육 기능의 체계화 |

원우의 면모 일신을 위한 최진남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수호를 위해 묘직(廟直) 14명을 배정하는 한편 원장(院長) 및 유사직(有司職)을 신설하여 원임 체계를 갖추었고, 원적을 통해 유생을 관리함으로써 교육 공간으로서의 운영 방침을 완비하게 된다.

원(院)의 이름을 게시하여 굴림서원(橋林書院)이라 했는데, 이곳에 굴림이 있기 때문이었다. 묘직 14명을 모집하여 신역(身役)을 면제하고 번갈아 수직(守直)하게 했다. 원장 1인과 유사 2인을 두어 원사를 주관하게 했다. 또 유생 가운데 배움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별도로 기록하여 원적(院籍)으로 삼아 어진이를 존경하고 지향해야 할 바를 알게 했다. 유생 가운데 원적(院籍)에 등록된 이라면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배우는 자의 도리를 다해야 하지 않겠는가?⁴¹

즉, 최진남은 새로운 공간의 확보와 건물의 조성이라는 외적 정비를 넘어 운영시스템을 정비하여 교육환경을 완비함으로써 제주의 서원문화 정착에 부심했던 것이다.

41 『耽羅誌草本』 卷1, 「學校」, 〈橋林書院〉 '崔鎮南記'.

그렇다면 최진남은 어떤 인물이기에 이러한 교육문화 사업에 대한 열정과 안목을 지니고 있었던 것일까? 최진남은 문신 관료이기 전에 퇴계학(退溪學)을 계승한 영남의 사족이었다. 아버지 최동립(崔東昱)은 남명·퇴계문인 정구(鄭逋, 1543-1620)의 문인이었고, 김성일(金誠一)·류성룡(柳成龍)·구봉령(具鳳齡) 등 퇴계문인들과 교제가 깊었던 외조 이광준(李光俊)은 경상도 의성 빙계서원(氷溪書院) 중창의 주역이었다. 이처럼 그의 가학은 영남학, 특히 퇴계학에서 연원하였는데, 판관 부임 직후 충암묘부터 봉심한 것도 존현 예법을 중시했던 학자 가풍(家風)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앞서 곽림서원 이건의 지원자로 홍우량(洪宇亮)을 언급한 바 있다. 홍우량은 비록 무과 출신이었지만 조부 홍가신(洪可臣)이 퇴계·화담문인이고, 부친 홍영(洪榮) 역시 화담학통을 이은 허성(許箴)의 사위라는 점에서 퇴계·화담학풍의 영향을 크게 받은 인물이었다. 그의 가계는 정치적으로는 동인을 거쳐 남인을 표방함으로써⁴² 판관 최진남과 학파·정파적 동질성을 갖게 된다. 최진남이 퇴계학을 계승한 영남남인이었다면 홍우량은 퇴계·화담학통을 계승한 근기남인이었고, 이런 동질성이 곽림서원 이건 과정에서 굳건한 공조 형태로 표출된 것이었다. 전술한 충암묘의 건립이 대곡학통의 주관하에 이루어졌다면 묘우의 이건과 곽림서원으로의 승격을 실현시킨 동력은 퇴계·화담학통의 공조였던 것이다.

3. 존현의식(尊賢意識)의 강화와 원향 인물의 확대:

숙종조 이약동(李約東)·송인수(宋麟壽)·김상헌(金尙憲)·정운(鄭蘊) 추배론

42 홍우량의 백형 홍우정은 병자호란 이후 태백산에 은거한 '太白五賢'의 한 사람이고, 중형 홍우원은 趙綱·許穆·尹善道와 함께 '南人4先生'으로 인식되는 등 이 가문은 17세기 남인 사회에서 정치·학문적으로 높은 위상을 점하고 있었다.

굴림서원은 서원으로서의 체격(體格)을 갖춘 직후인 1668년 추배가 이루어지게 된다. 추배론을 주도한 인물은 1667년(현종 8) 홍우량의 후임 목사였던 이인(李寅)이었다. 이인은 1470년부터 1473년까지 목사로 재임하며 치도(治道)의 기반을 닦은 이약동의 6세손이었다. 이약동의 치적에 비추어 볼 때, 굴림서원 추배는 상당한 명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원향론은 사림의 공론이 필수 요건이었음에 비해 이인은 공론의 충분한 수렴보다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었던 관권을 바탕으로 이약동을 추배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써 굴림서원의 제향 구조는 김정(金淨)·이약동(李約東) 양위 체제를 갖추게 되지만 공론 수렴의 불충분성은 문제의 소지를 남기게 된다. 이런 우려는 순무사 이선(李選, 1632-1692)의 출향 조처에 의해 현실화되었다. 1675년(숙종 1) 순무사로 파견된 이선은 이약동의 추배를 사정(私情)에 따른 것으로 규정하고 이약동의 출향(黜享)을 공식화한 다음 별사(別祀)할 것을 지시했다. 굴림서원에서의 출향은 김정에 비견되는 유현(儒賢)으로서의 위상을 부정한 것이고, 하나의 대안으로서 별사를 고려한 것은 치도 확립에 기여한 목민관으로서의 역할을 존중한 조처였다. 추배를 주도한 이인과 철향을 지시한 이선(宋時烈 門人) 모두 서인 기호학파에 속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선의 조처는 정치적 이해 관계와는 무관한 원향론에 대한 인식 차이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때 취해진 이약동에 대한 별사(別祀)는 후일 별사(別祠)인 향현사(鄉賢祠, 象賢祠) 건립의 명분이 되었다.

이런 가운데 굴림서원은 1678년(숙종 4) 송인수(宋麟壽)·김상헌(金尙憲)·정운(鄭蘊)을 추배함으로써 4현 체제를 갖추게 된다. 송인수와 김상헌은 목사 또는 어사 자격으로 제주와 연고를 맺은 인물이고⁴³, 정운은 1614년부터

43 김상헌은 1601년 巡撫御史 파견시 ‘冲庵廟’를 찾았는데, 이때 그는 제문에서 김정을 도학의 宗師이자 사림의 元氣로 표현하며 강렬한 경모의식을 피력한 바 있다(金尙憲, 『淸陰集』 卷15, 〈祭耽羅冲菴祠宇文〉. “嗚呼 先生之泰兮 吾道其昌 先生之否兮 士林其

터 1623년까지 대정현에서 유배 생활을 했다. 추배 당시의 제주목사는 서인계[노론] 인물인 최관(崔寬)이었다.⁴⁴ 이약동은 출향시킨 반면 송인수·김상헌·정온의 추배를 수용한 것은 굴림서원의 제향 기준이 도학(道學)·절의(節義) 등 주자학적 가치에 주안점이 있음을 천명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3현의 추배는 굴림서원 위상의 현저한 신장으로 이어졌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1682년(숙종 8)에는 청액운동이 전개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제주유생들의 낙관적 기대와는 달리 청액은 조정의 신중론으로 인해 일시나마 난관에 봉착했다. 제주유생 양응도(梁應渡) 등의 청액소를 접수한 조정에서 첩설(疊設)을 우려하여 사액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바다 건너 문명이 밝지 못한 고을에서 또한 공경하고 흠모하는 마음이 일어나 이미 사우를 건립하고 이처럼 편액(扁額)을 청하니, 그들의 청원에 특별히 부응하여 먼 변방 지역을 권장하고 여러 사람의 뜻을 이끌어주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지만 네 신하의 서원이 각각 다른 지역에도 있어 첩설의 혐의가 따르게 되니, 상소의 사연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⁴⁵

김정·송인수·김상헌·정온의 경우 실제 여러 서원에서 제향되고 있었던 바⁴⁶, 조정의 우려는 합리적 판단의 결과였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을

殃 一斥不復 千里歸藏 豈惟識者 行路皆傷 天日重輝 覆盆生光 九原未昧 五服再章 邈此海國 春山草香 流風起慕 祀享有堂 眇余後生 夙飲遺芳 公餘祇謁 瞻溯彷徨 聊薦菲誠 橘綠柑黃 嗚呼百世兮 終不可忘”。

44 전주최씨 출신의 최寬은 후일 참찬에 오를만큼 현달했다. 仁祖의 국구 漢原府院君 趙昌遠이 증조 崔鐵堅의 사위였고, 종제 崔寔은 효종 부마 海昌尉 吳泰周의 아들 吳瑗(大提學)을 사위로 맞았다. 吳瑗의 아들은 아버지를 이어 대제학을 지낸 吳載純이다. 나아가 종조 崔衢 계통에서는 南有容(史判)·南公轍(領議政) 등의 외파가 배출되는 등 최관 일가는 노론의 핵심부에 위치하고 있었다.

45 『書院臚錄』, 〈肅宗 8年 6月 21日〉.

46 金淨은 보은 象賢書院, 宋麟壽는 청주 莘巷書院, 金尙憲은 양주 石室書院, 鄭蘊은 함양

제시한 것은 국왕 숙종이었다. 숙종은 조신들의 신증론에도 불구하고 사액을 전격 결정한 다음 예관 안건지(安健之)를 과견하여 ‘굴림남궁(楸林南宮)’이란 액(額)과 함께 선액(宣額) 제문을 내렸던 것이다. 제주 최초의 사액서원은 이런 과정을 통해 출현했다. 숙종은 선액 제문에서 4현의 학문과 행의를 크게 칭송하는 가운데 성명(性命)을 담보하고 바름(正)을 지킨 절조를 특서함으로써 굴림서원의 격을 높여 주었다.

4현은 정성을 바쳐 목숨을 걸고 선도(善道)를 지켰으며, 저마다 그 바름을 얻어 많은 선비들의 지향이 되고 한 고을의 관감(觀感)이 되었으니, 저 변방의 해도(海島)라고 해서 이들을 향한 깊은 경모의 마음이 없겠는가.⁴⁷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것은 당시 제주목사 신경윤(愼景尹, 1624-未詳)의 성향이다. 신경윤은 1681년 12월부터 1684년 4월까지 2년 4개월 동안 목사로 재임하는 동안 운주당(運籌堂)을 증건하는⁴⁸ 등 치적이 많았다. 최익현(崔益鉉)은 그의 목사로서의 자취를 이렇게 평가한다.

통정대부로 승차되어 김해부사로 재직하다 제주목사가 되었다. 제주는 문교의 영향이 적어 황루(荒陋)함이 나라 안에서 가장 심하여 상례·장례 및 자녀들의 혼사조차도 오랑캐의 풍속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공은 부임하자마자 예법에 따라 인도하는 가운데 학교를 중수하고 과시(課試)를 밝히고 세금 부과를 엄정하게 하자 민속이 그 방침에 따라 크게 변화였다.⁴⁹

濼溪書院에 주향 또는 배향되었는데, 모두 1682년 이전에 사액을 받은 서원이었다.

47 李益泰, 『知瀛錄』, 〈宣額賜祭文〉.

48 李益泰, 『知瀛錄』, 〈運籌堂重創記〉.

49 崔益鉉, 『勉菴集』 卷35, 〈戶曹參判明谷愼公墓誌銘并序〉. “其陞通政 在 金海時而爲濟州也 島中不沾文教 荒陋最甚 至於喪葬嫁娶 若夷俗然 公始至 依禮法導諭之 修學校 明課試 嚴科賦 民俗賴以丕變”

신경윤의 굴림서원 3현 추배는 사람과 학통을 이었던 가학 전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고조 신희복(愼希復)은 조광조의 문인이었고, 증조 신유(申有)는 조광조의 문인 조욱(趙昱)의 문하에서 수학했으므로⁵⁰ 그는 전형적인 사람과 가문의 자제였다. 여기에 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윤문거(尹文學)·박세채(朴世采) 등 기호학과 석학들과의 긴밀했던 교유관계가⁵¹ 더해지면서 사람에서의 위상도 매우 높아졌다. 특히 친교가 매우 깊었던 송시열이 김상헌의 청음문하(淸陰門下)를 출입했고, 존주론(尊周論)의 관점에서 김상헌(金尙憲)을 극도로 추앙했던 사실은 그가 3현 추배론, 특히 김상헌의 추배에 특별한 관심을 쏟는 이유가 되었다. 이 점에서 3현 추배는 정암학통(靜庵學統)의 확장과 청음학통(淸陰學統)의 추앙이라는 두 가지 목적과 취지가 접목된 의절(儀節)로 해석할 수 있다.

4. 송시열(宋時烈) 제향과 기호학과의 주도권 강화:

1695년 이익태(李益泰)의 송시열 추배론

김정(金淨)을 비롯한 굴림4현은 각기 학통 또는 정파적 성향에 있어서는 약간의 결을 달리하였지만 학문(學問)·행의(行誼)·절의(節義) 측면에서 사람의 공존(共尊)을 받은 명사들이었다. 예컨대, 김상헌·정온의 경우 각기 서인과 남인으로 정파를 달리했지만 '대의(大義)의 창명(彰明)'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제향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4현까지만 해도 굴림서원 원향론에 정치적 색채가 개입될 여지는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50 崔益鉉, 『勉菴集』 卷35, 〈戶曹參判明谷愼公墓誌銘并序〉. “高祖諱希復 遊靜菴趙文正先生門 號梅川 禮曹判書 兩館大提學 謚文莊 曾祖諱有 受業趙龍門昱”

51 崔益鉉, 『勉菴集』 卷35, 〈戶曹參判明谷愼公墓誌銘并序〉. “公少負重望 所與講道 皆一時名賢 如尤菴同春兩先生及尹石湖朴玄石諸公 皆推重獎拔 以爲公輔器”

그러나 숙종조 환국정치의 구도 속에서 서남간의 당쟁 또한 더욱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찬축(讜逐)·살육 등 정치적 보복도 더욱 노골화 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앙정치의 지방화가 확산됨으로써 원우 또한 그런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제향 인물의 정치성이 표면화되는 것도 이때부터였다. 이점에서는 굴림서원도 예외일 수 없었는데, 그 정치성의 중심에 숙종조 노론의 영수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위치하고 있었다.

송시열과 제주와의 연고는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己巳換局) 때 이루어졌다. 원자(元子) 정호(定號)를 계기로 발생한 기사환국은⁵² 서남간의 정권교체를 수반했고, 정호에 반대했던 송시열은 제주 유배형에 처해졌다. 그에게 제주 위리안치의 명이 내려진 것은 1689년 2월 4일이고, 3월 4일 제주에 도착하여 6일부터 위리안치되었다. 이후 나명(拿命)이 내리자 5월 17일에 출옥하여 6월 3일 정읍에서 사사되었다. 따라서 제주에 머문 것은 2개월 13일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 짧은 기간에도 그는 ‘문자행위(文字行爲)’를 통해 제주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자신의 정치 및 학술문화적 자취를 남겼다.⁵³ 3월 15일에 이루어진 ‘굴림4현’에 대한 치제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위리안치 죄인이라는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 친제(親祭)하지는 못하고 아우(宋時杰) 및 손자(宋疇錫)를 보내 대행시켰는데⁵⁴, 손수 찬술한 제문에는

52 이희환, 「肅宗과 己巳換局」, 『全北史學』 8(1984).

53 제주로 유배오는 도중에는 金長生의 묘소에 문인을 보내 致祭했고, 제주에 적거하는 약 2개월 동안에는 『問義通考』를 편찬하고, 『林慶業傳』을 찬술했다. 『林慶業傳』에는 衰世에 대한 비감이 넘쳤다고 하는데, 이는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항변으로 해석된다(宋時烈, 『宋子大全』 附錄 卷151, 〈告沙溪先生墓文〉. “維崇禎六十二年己巳二月十一日己酉 門人宋時烈得罪于朝廷 遠謫耽羅 夏過高井文元公沙溪金先生之墓 而竊嘗受教以爲朱子不滿意于伊川請見叔母之事 故不敢登拜 使松江後孫鄭滄操文以告曰”; 附錄 卷13, 〈墓表〉(權尙夏撰). “若朱子大全節疑二程書分類 長髻時所述也 語類小分 巨濟時所編也 問義通考 濟州時所成也”; 附錄 卷19, 〈記述雜錄〉(權尙夏撰). “先生濟州時 特爲林將軍慶業作傳表獎備至 蓋出於衰世之感也”).

54 宋時烈, 『宋子大全』, 「年譜」, 〈己巳〉(1689). “遣二弟及孫疇錫 操文告于橋林書院”

4현에 대한 경모의식, 종사에 충정을 다했음에도 죄인의 신세로 전락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분(悲憤)이 혼재되어 있었다.⁵⁵ 송시열이 4현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 치제는 제주유림들에게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 후일 전개되는 추배론의 주된 명분으로 작용하게 된다.

송시열의 굴림서원 추배가 이루어진 것은 사후 6년째 되던 1695년이였다. 1694년 7월 문인 이익태(李益泰, 1633-1704)의 목사 부임이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전주 출신으로 양송(兩宋), 즉 송시열·송준길의 문하를 출입했던 이익태는 정치적으로는 서인, 학문적으로는 기호학파를 표방했다.⁵⁶ 남인이 축출된 경신환국(庚申換局) 직후인 1681년에는 남인계 재상 오시수(吳始壽)의 사사론(賜死論)을 주도하는⁵⁷ 등 서인계 중에서도 준론에 속했고, 1678년 호남 유생 생원 유보(柳普) 등이 올린 ‘김장생문묘종사요청소’의

55 宋時烈, 『宋子大全』 卷151, 〈濟州橘林書院告四先生文 己巳三月十五日〉.

56 이익태는 아우 李后泰와 함께 宋時烈·宋浚吉門下를 출입했는데, 宋煥箕가 찬술한 이후태의 묘갈명을 통해 송시열·송준길과의 학문적 상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宋煥箕, 『性潭集』 卷20, 〈游溪李公墓碣銘并序〉. “時同春宋先生以祭酒訓誨諸生 而見公肄業之精 大加歎賞曰 我居師席 不能與諸生恒處 子其相與講劄以勉勵焉 [...] 一自就拜尤翁以來 意切於源源講質 而每以篤老侍下 不得遠遊 深致恨嘆 當尤翁耽羅之行 迎候於壺山 乃質以疑禮 尤翁曰李上舍亦有禮疑乎 蓋其平日以知禮見稱於世也 [...] 嗟公篤學 薰炙尤春之門”). 한편 이익태는 제주목사에 재임하던 1695년 제주에서 金齊閔의 문집 『鰲峯集』을 간행하였는데, 李恒의 문인인 김제민은 그의 외고조였다. 이를 통해 이익태의 가학적 연원을 가늠해 볼 수 있다(尹拯, 『明齋遺稿』 卷32, 〈鰲峯集序〉. “公諱齊閔 乃李一齋之門人也 登第 官至於寺正 吾仲父童土府君 實銘其墓”; 金齊閔, 『鰲峯集』 〈鰲峯集跋〉(李益泰撰). “往歲壬戌 余之知公山也 戚丈金道器氏 袖鰲峯文集 來謁余曰 此迺吾曾祖遺稿 於君亦外高祖也 任此刊行 非君其誰 余拜受而卒業曰 謹承教矣 未幾棄官 及宰瑞寧 旋即解歸 厥後以家禍奔避 無意於人世事矣 去秋來守是邦 思副宿願 遂謀劄劄氏 拮据財力 始役於今春 未終月而功告訖 噫 經營累載 竟成於今 其有待而然歟 茲豈非幸也 乙亥三月日 通政大夫 行濟州牧使李益泰 謹跋于橘林堂”).

57 吳始壽, 『水村集』 附錄 卷3, 〈行狀〉(李瑞雨撰). “辛酉六月十一日 大司憲洪萬容 掌令崔翼商 李益泰 持平金鎮龜尹德駿 正言李彥綱金萬塚 校理吳道一 修撰李塾請對入侍 極言公不可赦 上允之 翌日 下旨賜死”

소본(疏本)을 찬술했을만큼 기호학과에서 일정한 비중을 점하고 있었다.

선생께서 ‘이번에 호남노선생(湖南老先生; 金長生)을 문묘에 종사하자는 소본(疏本)은 누구의 손으로 만들어졌으며 주의(主意)는 어떤 것이냐?’고 물으시기에 내가 ‘완산(完山)에 사는 장령 이익태(李益泰)가 지었는데, 예학(禮學)을 소청(疏請)의 주안점으로 하였습니다.’고 했다.⁵⁸

무엇보다 그는 1689년 6월 3일 송시열이 정읍에서 사사되자 조문 및 치상에 정성을 쏟으며 제(弟)의 도리를 다하게 된다.

6월 9일. 충주의 정온(鄭溫)과 고창현감 신계징(申啓澄), 덕산현감 송삼석(宋三錫) 형제, 감역 김창석(金昌錫) 형제, 첨정 김만증(金萬增), 삭녕군수 이동형(李東亨), 참봉곽시징(郭始徵), 전주의 서산군수 이익태(李益泰), 황간의 박회장(朴晦章), 공주의 민진강(閔鎭綱)·이사안(李師顔)·소한규(蘇漢圭)와 옥천·영동·청주·연산·회덕 등지 및 도내의 선비들이 계속해 와서 모인 사람이 수천 명이었다.⁵⁹

6월 13일 맑음. 날이 채 밝기 전에 조전(朝奠)을 올리고 발인하였다. 상여꾼은 금구의 선비들 중에서 징발하였는데, 수십 리를 가서 전주의 경계에 이르니, 전 군수 이익태(李益泰), 전 현감 유덕옥(柳德玉) 등이 곳곳에 상여꾼을 대기시켜 놓고 있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상여꾼을 교체한 다음 출발하였다. 정오가 되기 전에 삼례(參禮)에 도착하여 아침 상식(上食)을 행했다.⁶⁰

58 朴光一, 『遜齋集』 卷9, 〈興農洞語錄丁卯〉. “先生曰今番湖南老先生從祀疏草 出於誰手 而主意何居 對曰完山李掌令益泰之所撰 而以禮學爲主矣”

59 宋時烈, 『宋子大全』 附錄 卷19, 「宋書續拾遺」 附錄 卷2, 〈楚山日記〉(第3).

60 宋時烈, 『宋子大全』 附錄 卷19, 「宋書續拾遺」 附錄 卷2, 〈楚山日記〔門人閔鎭綱〕〉.

이런 흐름 속에서 제주목사에 부임한 뒤에는 송시열의 굴림서원 추배를 추진하며 사문추양론(師門推揚論)을 이끌었던 것이다. 굴림서원은 사액서원이었으므로 송시열의 추배를 위해서는 조정의 승인 절차가 필요했다. 이에 그는 1695년 6월 경내 유생들을 통해 ‘추배요청소’를 올려 숙종의 재가를 얻음으로써 추배에 따른 행정적 제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송시열과 같은 도학(道學)과 명절(名節)로도 마침내 견책을 받아 네 신하가 일찍이 거쳐 갔던 지역에서 귀양살이를 하였으니,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네 신하의 사우에 합향하는 것은 의리가 정당하여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원교(圓橋, 濟州) 한 구역은 성상의 교화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덕(德)을 높이고 의(義)를 앙모하는 것은 한결같이 천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소하여 호소하는 것은 그들의 성심(誠心)이 보존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상히 여길만한 일입니다.⁶¹

이 상소는 제주 유생 김성우(金聖雨) 명의로 개진되었지만 실제 찬술자는 김춘택(金春澤, 1670-1717)이었고⁶², 이를 숙종에게 보고한 담당 승지는 김진귀(金鎭龜, 1651-1704)였다. 김진귀는 김장생(金長生)의 현손이고, 김춘택은 김진귀의 아들이었다. 이는 송시열 추배론이 사계·우암학통의 치밀한 기획과 조율 속에 추진되었음을 의미하며, 현지에서 사론을 조율하며 행정적 실무를 총괄했던 것이 제주목사 이익태였던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1695년 8월 28일 송시열의 굴림서원 배향례(配享禮)가 거행되었는데, 이 예식의 주관자 또한 이익태였다.

61 『書院謄錄』, 〈肅宗 21年 6月 19日〉.

62 金春澤, 『北軒居士集』 卷10, 〈濟州儒生請橋林書院並享文正公宋時烈疏〉.

제주목사 이익태(李益泰)가 올린 장계에, '이번 8월 28일 계정(季丁)으로 택일하여 세 고을의 많은 선비들이 모였는데, 신과 판관 노삼석(盧三錫) 및 교수(敎授) 정희량(鄭希良)이 많은 선비들을 이끌고서 치재(致齋)하고 기일(期日)에 앞서 고유한 후에 선정신(先正臣) 송시열의 위판을 예문(禮文)에 따라 굴림서원에 봉안하고 제사를 행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⁶³

굴림서원 연혁: 창건~송시열 추배

| | |
|---------|---------------------------------------|
| 創建 | 1578년_총암묘 건립과 김정 제향_대곡학통(大谷學統)의 주관 |
| 移建 및 陞院 | 1677년_굴림서원으로 승격_퇴계(退溪)·화담학통(花潭學統)의 주도 |
| 追配(1차) | 1678년_송인수·김상헌·정은 추향_기호학통(畿湖學統)의 주도 |
| 賜額 | 1683년_굴림남궁(橋林南宮)으로 사액_우암학통(尤菴學統)의 기획 |
| 追配(2차) | 1695년_송시열 추향_기호학통의 주도권 강화 |

이익태는 4현에게 올린 글에서는 송시열의 학문과 충의를 특서하는 한편 기사환국을 조광조와 송인수가 화를 입은 기묘사화 및 을사사화와 동일시하며 송시열을 추배하는 사유를 피력했고⁶⁴, '봉안문'에서는 이이 ⇨ 김장생 ⇨ 송시열로 이어지는 도학(道學)의 통서(統緒), 북벌론(北伐論)에서 드러난 존주대의(尊周大義)의 기상을 피력하는 가운데 학문과 도덕 그리고 의(義)의 실천에 있어서의 4현과의 묘계(妙契)를 강조하며 추배의 정당성을 역설했다.⁶⁵ 이로써 굴림서원은 5현의 제향처로 그 체모를 일신하며

63 『書院臚錄』, <肅宗 21年 10月 6日>.

64 李益泰, 『知瀛錄』 <先告事由文>. "其學問之淵源 有自來矣 忠義之正大 在人耳目而已 己巳之禍 無異於己卯乙巳之慘 士林之慟念 愈往而愈深"

65 李益泰, 『知瀛錄』, <尤齋先生奉安祭文>.

위상을 강화하게 된다. 특히 송시열의 추배는 기호학통과의 학문적 유대를 강화하는 확고한 계기로 작용하면서 18세기 이후 제주지역 학풍의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굴림서원에 미친 기호학통의 영향은 1772년에 이루어진 중수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당시 중건론을 주도한 인물은 권진응(權震應, 1711-1775)이었다. 송시열의 적전(嫡傳) 권상하(權尙夏)의 증손인 그는 1771년에 올린 ‘권상하변호소(權尙夏辯護疏)’가 탕평(蕩平)의 정신을 훼손했다는 죄목으로 제주 대정현에 위리안치 되었다.⁶⁶ 위의 상소에서 그는 송시열을 자신의 부조(父祖)와 동일시할만큼⁶⁷ 기호학통에 대한 계승의식이 강렬했다.

권진응이 위리안치된 곳은 안덕면 창천리 강씨가(姜氏家)였으며, 여기서 그는 약 10개월 동안 주자(朱子) 및 송시열의 문집을 체독하며 학문에 열중하다 1772년 해배되었다.⁶⁸ 제주 적거는 분명 개인적 수난사였지만 이 과정에서 그는 연원의 자취를 찾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송시열·김정의 적려지(謫廬地)를 심방한 것이 그것이다. 특히 송시열의 적려지에는 ‘우옹적려비(尤翁謫廬碑)’를 건립하여 연원의식을 표출하였는데, 이는 기호학풍의 팽창으로 해석할 수 있을만큼 획기적 조치였다. 무엇보다 이 비가 제주·정의·대정 3읍 유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건립된 것에서⁶⁹ 당시 제주지역에 확산되어 있었던 기호학풍의 영향력을 실감하게 된다.

나아가 그는 1772년 해배된 뒤에는 굴림서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5현을

66 『英祖實錄』, 〈英祖 47年 3月 14日(乙卯)〉.

67 『英祖實錄』, 〈英祖 47年 3月 12日(癸丑)〉. “諮議權震應上疏 略曰 臣曾祖臣尙夏 服事先正 臣宋時烈 自幼視先正如父祖”

68 宋煥箕, 『性潭集』卷23, 〈山水軒權先生墓誌銘并序〉. “及入大靜 乃住滄川里 靜討一室 取朱子書尤菴集 端坐潛玩 晏然如在家時焉”

69 宋煥箕, 『性潭集』卷23, 〈山水軒權先生墓誌銘并序〉. “到配之初 卽問尤翁所當居停 則未有知者 公博訪之 始得其遺墟 亟謀于三邑章甫 鳩財豎碑而識之 島俗蚩蚩 素蔑文教 而孝義節烈 多出於輿僮之賤 亦皆泯沒無聞 公因故老言 爲作傳記以表章之”

기자(箕子)에 비견되는 제주의 인문적(人文的) 토대를 고양시킨 인물로 칭송하는 가운데 서원 중수론을 발문하였다.

사묘(祠廟)가 오래되어 허물어졌는데도 고을 선비들의 힘이 피폐하여 수리할 수 없었다. 내가 유생들에게 여러 군부(郡府)에 서신을 발송하여 재물을 요청케 할 것을 권유하여 임진년(1772) 10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다음해(1773) 2월에 마치니 사묘가 장대하고 미려해졌다. [...] 목사 양세현(梁世絢)이 실제로 이 공역을 주관했고, 서원 유생 정태로(鄭泰老)·강봉서(姜鳳瑞)가 처음부터 끝까지 공사를 감독했다.⁷⁰

위 인용문에 따르면, 1772-1773년의 굴림서원 중수는 권진응의 기획 속에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기호학풍의 확산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IV. 17세기 이후 기호(畿湖) · 영남학풍(嶺南學風)의 이원적 수용과 그 전개

1. 서인 기호학과

1) 이익(李瀾)의 유배와 기호학풍의 진작

17세기 제주지역의 유풍, 특히 서인학풍의 확산과 관련하여 주목할 인물은 이익(李瀾, 1579-1624)이다. 그는 1618년(광해군 10) 폐비론에 반대하다 제주로 유배되었고⁷¹, 1623년 인조반정으로 복관되기까지 약 5년간 적거하

70 『耽羅誌草本』, 「學校」, 〈橋林書院〉, 「權震應記」.

71 『光海君日記』, 〈光海君 10年 11月 16日(辛丑)〉. 崔錫鼎이 지은 묘갈명에 따르면, 이익

는 동안 후진 양성에 주력하여 다수의 문인을 배출하게 된다. 이익은 이괄(李适)의 반란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워 계림부원군에 봉해진 숙부 이수일(李守一)의 보호 아래 성장했다.⁷² 학통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없지만 송시열과 함께 효종조 북벌론의 문무 양축을 이루었던 이완(李浣)이 그의 종제라는 점, 역시 종제인 이정(李淀)이 김장생의 아들 김반(金槃)의 사위라는 점은 기호학과와의 친연성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⁷³ 그는 서인계에 속했지만 남인계인 조직(趙潑)·정온(鄭蘊) 등과 교유하는 등 정파에 대한 구속력이 적었고, 특히 김장생(서인)과 정경세(남인)의 문하를 아울러 출입했던 상주 출신의 학자 신석번(申碩蕃, 1596-1675)과도 친교가 깊었다. 신석번은 17세기 중반 영남지역 노론의 핵심 인물이라는 점에서 정치·사상적 비중이 높은 인물이었다.⁷⁴ 신석번의 문집 『백원집(百源集)』에는 이익에게 증정한 네 편의 시가 실려 있는데, 대부분 적거 중인 이익을 위로 또는 그리워하는 내용이다. 이 시편들이 그려내는 신석번의 이익에 대한 기억은 연군(戀君)과 우국(憂國)에 바탕한 직도(直道)와 충신(忠信)의 자세를 잃지 않았던 학자·관료의 모습이다.⁷⁵ 이와 관련하여 최석정(崔錫鼎, 1646-1715)

은 극형을 당할 위기에 처했으나 奇自獻의 변호로 형신을 면하고 유배형에 그쳤다(崔錫鼎, 『明谷集』 卷23, 〈司憲府掌令贈弘文館典翰李公墓碣銘〉. “主益怒 命三省推鞠 禍將不測 相臣奇自獻再劄救解 稱疾不赴鞠 以故得免刑訊”).

- 72 崔錫鼎, 『明谷集』 卷23, 〈司憲府掌令贈弘文館典翰李公墓碣銘〉. “公以萬曆己卯降 少失怙恃 季父鷄林公守一宰南土 兄弟往從 厲志篤學”
- 73 이익의 손자 李炳·李燁이 윤선거의 문하에서 수학했고, 특히 이병은 1689년 성혼·이이의 문묘출향반대소를 올렸다가 원방에 정배되었는데, 이는 이 가계가 기호학과 중에서도 우계학통을 표방했음을 의미한다(崔錫鼎, 『明谷集』 卷23, 〈司憲府掌令贈弘文館典翰李公墓碣銘〉. “炳燁游魯西尹公門”; 『肅宗實錄』 〈肅宗 15年 3月 30日(丁酉)〉).
- 74 김학수, 『17세기 嶺南學派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8).
- 75 申碩蕃, 『百源集』 卷1, 〈送李沔如翼謫濟州〉. “流落還相見 懸燈話五更 聲名推直道 忠信仗平生 萬里滄波闊 孤槎性命輕 天高杳北斗 何處望西京 夙謫田生語 今憑鄒子歸 寧爲五日死

은 묘갈명에서 이익의 제주 생활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공은 감사(減死)되어 제주에 안치되어서는 오로지 성리서(性理書) 공부에 몰두했고, 항상 주경(主敬)을 요체로 삼았다. 날마다 서명(西銘) 및 경재잠(敬齋箴)을 암송하였으며, 『주서자절요(朱子書節要)』를 백 번 이상 읽어 자경(自警)·자성(自省)하는 바가 컸다. 적거 후반기에는 거문고를 배워 때때로 서너 곡조를 연주했고, 매일 아침 의관을 정제하고 뜰 아래에서 북쪽을 향해 재배하고 밤늦게까지 단정하게 앉아 책을 읽음에 조금도 나태한 기색이 없었다.⁷⁶

최석정의 서술에 따르면, 이익의 제주 적거는 관료에서 학인으로의 전환이자 정치적 수난 속에서도 존군 의식(尊君意識)을 조금도 훼손하지 않았던 충신(忠信)한 삶의 과정이었다. 문과에 합격한 사대부라는 사회적 신분, 성리서에 전념하는 이익의 학인적 면모는 현지인들의 향학 의지를 자극했고, 특히 이익보다 먼저 유배를 온 정온(鄭蘊)·송상인(宋象仁)과의 교유는⁷⁷ 제주 유림들의 학문적 분위기를 고취시키는데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그 결과 이익은 다수의 제주지역 문인을 배출했고, 문인 및 그 후손 중에는 문과를 통해 관계에 진출한 인물이 적지 않았다.

已許百年期 道直元無妄 天高必聽卑 從來隨所遇 一理信如斯”；卷1, 〈寄李河如〉 離絃誰復聽 苦奏不成音 北望堯天遠 南遷禹穴深 向來憂國淚 今日戀君心 牛斗猶橫紫 空悲古剝沈；卷1, 〈李河如書到〉；卷1, 〈憶李河如〉。

76 崔錫鼎, 『明谷集』卷23, 〈司憲府掌令贈弘文館典翰李公墓碣銘〉. “公則減死 濟州安置 專攻性理書 常以主敬爲要 日誦西銘敬齋箴 讀過朱書節要百餘遍 深有警省 晚學琴 時彈數弄 每朝正衣冠下庭 北向再拜 終夕危坐觀書 未見有惰容”

77 崔錫鼎, 『明谷集』卷23, 〈司憲府掌令贈弘文館典翰李公墓碣銘〉. “時宋象仁鄭蘊同梅棘 倡酬往復以自遣”

이익(李瀾)의 간옹학맥(艮翁學脈): 문인 및 자손

- 김진용(金晉鏞, 1605-1663): 생원/참봉
- 고흥진(高弘進, 1602-1682): 문과/전직
- 김계창(金繼昌, 1637-1699): 문과/전직/김진용의 6자
- 김계룡(金繼隆, 1632-1690): 진사/문과/정랑/굴림서원 원장/김진용 4자
- 김계흥(金繼興, 1647-1701): 문과/감찰/김진용 조카
- 고기종(高起宗, 1632-미상): 문과/정자/김진용의 생질
- 이수근(李壽根, 1710-미상): 문과/직장/이익(李瀾) 현손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익의 간옹학맥의 중심을 이룬 인물은 김진용(金晉鏞)이다. 제주지역 '간옹고제(艮翁高弟)'로 규정할 수 있는 그는 1635년 진사시에 입격하였지만 신분은 향리였다. 이처럼 그는 향리였음에도 간옹 문하에서 수학하여 사마시에 입격했을 정도로 학식과 문장이 뛰어났다. 그런 정황은 1649년 목사 김여수(金汝水)가 증건한 홍화각(弘化閣)의 중수기를 지은⁷⁸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식인으로서의 성장은 지역사회의 학술문화적 환경에 대한 책무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1660년(현종 1) 장수당(藏修堂)의 건립은 그런 의지의 구체적 표현이었다. 당시 목사였던 이괴는 김진용의 학문적 자질과 출처를 높이 평가하여 좌수(座首)로 삼아 측근에서 보좌하게 하는 등 매우 신임했다.

지역 사람 가운데 김진용은 식년시에 여러 번 낙방했음에도 강경(講經)에 계속 참여하여 참봉의 직임을 주려고 했으나 벼슬을 좋아하지 않아 병을 핑계대고 산야에 묻혀 사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가 고인(古人)의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좌수로 삼았다. 내가 임기가 찰 무렵에 김진용이 나에게 와서

78 李益泰, 『知瀛錄』, 〈弘化閣重修記〉(鄉史金晉鏞撰).

‘목사께서 부임하신 이래 유생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아 유생들 또한 그 가르침에 따라 부지런히 문학에 힘써 크게 변화되는 덕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학업을 장려해 놓고 벼슬에서 물러나시면 유생들은 다시 의지할 데가 없어지고 배움을 장려하여 문운을 일으킨 것 또한 농사짓는 것으로 돌아가게 되니 어찌 애석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다.⁷⁹

이런 맥락에서 김진용 또한 이괴를 선치(善治) 수령으로 호평하면서 상호 신뢰가 구축되었는데, 장수당의 건립은 이괴의 관료적 흥학 의지에 편승하여 지역의 교육환경을 확충코자 했던 김진용의 토착민으로서의 이해가 접목되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진용은 이익의 문인으로 기호학통을 계승했지만 학자 또는 지식인으로서의 현실 참여는 퇴계학 계통의 남인계 관료 이괴의 재임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기호학과 퇴계학의 효율적 절충 또는 융합을 추구했던 인물로 파악할 수 있다. 이후 김진용은 제주 유림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인물로 부각될 수 있었고, 그 자질(子姪)들 또한 과거를 통해 관료로 진출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특히 4자 김계룡은 굴림서원 원장을 지내며 17세기 중후반 제주유림의 구심점으로 역할하게 된다.

2) 김정희(金正喜)·최익현(崔益鉉)의 유배와 재지 지식인층의 저변 확대: 김용징(金龍徵)·김희정(金羲正)을 중심으로

이항로(李恒老)의 문인으로서 스승과 함께 위정척사파의 거두로 활동한 최익현(崔益鉉, 1833-1906) 역시 1873년부터 3년간 제주에 적거하는 과정에서 기호학풍을 확산시키게 된다. 그는 이단상(李端相) ⇨ 김창흡(金昌翕) ⇨ 김신겸(金信謙) ⇨ 김원행(金元行) ⇨ 이우신(李友信) ⇨ 이항로(李恒老)로

79 李益泰, 『知瀛錄』, 〈藏修堂記〉(李檜撰).

이어지는 학통을 계승했으므로 기호학통 중에서도 낙론계(洛論系)에 속했다.⁸⁰

최익현은 제주를 ‘삼성(三姓)이 개척한 터전에 5현(五賢)이 풍교(風教)를 드리운 곳’으로 감각하였는데, 그런 인식은 아래의 시에 잘 집약되어 있다.

三姓開荒地 삼성이 처음 개척한 땅이요
五賢配食場 오현이 제향을 받는 곳이네
餘風猶不沫 남은 풍교 다함이 없으니
興感春暉長 느낀 마음에 봄날이 기네⁸¹

한편 최익현은 1874년 3월 지역 탐방이자 ‘연원순례(淵源巡禮)’의 성격을 지닌 행보에 나섰는데, 그 여정의 시작은 1772년 권진응(權震應)이 송시열의 적거지에 건립한 ‘우옹적려비(尤翁謫廬碑)’였고, 종착점은 굴림서원이었다. ‘우옹적려비’를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송시열에 대한 연원의식과 관계가 깊다. 『주자서(朱子書)』를 외고 『우암집(尤菴集)』『宋子大全』을 정독했다는 『면암연보(勉菴年譜)』의 기사는 그가 왜 송시열의 유적을 가장 먼저 찾았는지를 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의금부 도사 및 본관(本官) 이복희(李宓熙)가 와서 위리(圍籬)를 감시하고, 공궤(供饋)에 따른 물품은 본관에서 제공해 주었다. 선생은 출입을 하지 않고 집 안에서 조용히 있으면서 매일 『주자서(朱子書)』를 외고, 또 교궁(校宮; 鄕校)에 간직된 『우암집(尤菴集)』 한 질을 빌려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근차근 정독하며 귀양살이의 괴로움을 잊어버렸다.⁸²

80 조성산, 『조선후기 洛論系 學風의 형성과 전개』(지식산업사, 2007).

81 崔益鉉, 『勉菴集』 卷1, 〈謫廬偶感〉.

82 崔益鉉, 『勉菴集』 續集 卷3, 附錄 「年譜」, 〈癸酉〉(1873).

굴림서원에서 그는 제주의 유교적 지식·문화의 정착과 확산에 기여한 5현의 공로를 아래와 같이 평가하고, 또 기렸다.

이 작은 제주는 오랫동안 개명치 못해 잡스러운 말과 가죽 옷을 입는 등 풍속이 비루(鄙陋)하였습니다. 아, 우리 오현(五賢)이 혹은 귀양살이로 혹은 관직으로 이곳에 와서 백성들이 흥기되고 감격하여 지금까지 공경하니, 그 연유를 따져 보면 사실은 하늘의 뜻입니다.⁸³

최익현의 제주 적거는 본토 유림과 제주유림의 교류를 촉진하는 가운데 상당수의 인사들이 면암문하를 출입하게 되었다.⁸⁴

도중(島中)의 문사(文士)로 안달삼(安達三)·김희정(金羲正)·강기석(姜基碩)·김용징(金龍徵)·김훈(金堧)·김치용(金致瑢)·김양수(金養洙) 같은 이들이 왕래하며 중유하였고, 호서(湖西) 사람 맹문호(孟文浩)·최영환(崔榮煥), 호남 사람 최승현(崔勝顯)·박해량(朴海量)·김효환(金孝煥)·김형배(金衡培)·안진환(安璉煥)·이필세(李弼世)가 모두 바다를 건너와서 만났다.⁸⁵

위 인용문에 보듯 최익현을 중유했던 대표적인 현지 문인으로 안달삼(安達三)·김희정(金羲正)·강기석(姜基碩)·김용징(金龍徵)·김훈(金堧)·김치용(金致瑢)·김양수(金養洙) 등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김용징과 김희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납읍(納邑) 출신의 김용징(1809-1890)은 조선후기 제주지역에서는 상당

83 崔益鉉, 『勉菴集』 卷24, 〈橘林書院遺址祭五先生文〉.

84 최익현의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김인기, 「조선후기 면암 최익현이 제주교육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1).

85 崔益鉉, 『勉菴集』 續集 卷3, 附錄 「年譜」, 〈癸酉〉(1873).

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5대조 김이강(金利剛)이 1696년 납속(納粟)으로 통정대부가 되고, 고조 김예보(金禮寶)가 1697년 영직(影職)으로 예빈시 봉사가 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⁸⁶

당시 제주 유림들은 육지로 나와 학업 또는 과업(科業)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김용징 또한 1833년 무렵에는 전라도 부안(扶安)에 거주하며 학업에 종사했다. 이 때 그는 전라도 관찰사에게 거주지인 제주가 아닌 부안에서 과거에 응시할 수 있도록 청원하여 허락을 얻은 바 있었고⁸⁷, 1843년 진사시에 입격한 뒤 6년간 성균관에서 유학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고향 제주로 돌아와 향교의 교수를 역임하는 등 학문 활동 및 후학 양성에 힘쓰며 19세기 중후반 제주유림의 구심점으로 역할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그는 두 유배 지식인과의 사우관계를 통해 학문 및 사회적 기반을 확대하게 되는데, 김정희(金正喜)와 최익현이 바로 그들이다. 김정희의 제주 유배 기간은 1840년부터 1848년까지 약 9년이다. 이 시기는 김용징이 진사시 입격 이후 제주와 서울을 왕래하며 학문적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을 때였다. 연령 및 사회적 신분을 고려할 때, 김용징은 김정희와 수직적 관계, 즉 사제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연장선상에서 김정희는 김용징의 부친 김봉철(金鳳喆)의 묘표 글씨를 쓰게 된다.⁸⁸

전술한 바와 같이 김용징은 1873년 제주에 유배 온 최익현을 중유하며 학문적 교유의 폭을 크게 확장함으로써 지역 사회에서 학자적 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의 이러한 학문적 활동은 후손들의 사회적 역할에도 영향을 미쳐 아들·손자를 비롯하여 증손까지 3대가

86 『古文書集成』 114, 818쪽, 〈金利剛告身〉; 818쪽, 〈金禮寶告身〉.

87 『古文書集成』 114, 826쪽, 〈議送〉(1833). 이 議送에는 蔡亨鳳을 비롯하여 金龍徵·金光最·邊用堡·金光秀·金光瑞·李壽亨 등 총 8명의 유생이 연명하였는데, 당시 제주 유생들의 학업 방식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된다.

88 『古文書集成』 114, 882쪽, 〈碑文〉.

훈장직을 승계했다.

김용징이 양성한 문인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문인 김명악(金命岳)이 1854년 제주 별시에서 장원으로 합격한 사실에서⁸⁹ 그의 문하의 지적(知的)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김용징은 제주 유림사회에서 상당한 존경을 받았는데, 이런 정황은 1935년 그의 묘비 건립과 관련한 문인들의 인식과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징의 묘비 건립을 위해 자손들은 문인들에게 협력을 촉구했던 것 같다. 이에 문인들은 김용징의 학자적 자세와 지역사회에 미친 지식문화적 공효(功效)를 강조하며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드러냈다.⁹⁰ 이에 따르면, 김용징은 청통(淸通)한 자질과 해박한 식견에 걸출한 문사(文詞)까지 겸한 학인이었다. 이 글에서 특히 주목할 대목은 학파에 치우치지 않았던 학문적 포용성이었다.

항상 퇴계(退溪: 李滉)의 학(學)과 율곡(栗谷: 李珣)의 이(理)를 거론하며 후학들에게 설강(說講)했다.⁹¹

물론 그는 『주자대전』과 『송자대전』을 문인 교육의 요체로 삼음으로써 기호학통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강고하게 유지하였지만 ‘퇴율(退栗: 李滉과 李珣)’을 병거(竝擧)한 것은 19세기 제주학풍의 융합양상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김용징이 최익현과 종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김희정(金羲正)은 사제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관계성에 강도가 더해졌다. 김용징은 19세기 중엽

89 『古文書集成』 114, 817쪽, 〈紅牌〉(3). 金命岳의 흥패가 스승인 金龍徵의 후손가에 소장된 경위는 미상이다.

90 『古文書集成』 114, 857쪽, 〈回章〉.

91 『古文書集成』 114, 857쪽, 〈回章〉. “每學退學栗理以說與來學”

제주의 대표적 학자였던 이한진(李漢震)의 문하에서 수학했고, 1873년 최익현의 적거를 계기로 면암문하에 입문했다.⁹² 면암문하 수학은 인적 관계망의 확대를 수반하여 그의 교유 관계는 기우만(奇宇萬)·김평묵(金平默) 등으로까지 확장되었는데, 그 실상은 경향을 왕래하는 과정을 일기체로 기록한 『도해록(蹈海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희정은 다수의 문인을 배출했고⁹³, 그 자손들은 항일운동에 참여하여 배움의 실천성을 몸소 구현하게 된다.

2. 남인 퇴계학과

1) 이괴(李檜)의 목사 재임과 근기남인계 학풍의 적용: 교육기반 확충론을 중심으로

관료를 통해 제주지역에 유입된 근기남인 학풍과 관련하여 주목할 인물은 1658년 4월부터 1660년 5월까지 목사로 재임했던 이괴이다. 연안이씨 출신의 이괴(李檜, 1607-1666)는 전형적인 근기남인 가문의 자제였다. 조부 이주(李澍)는 1565년(명종 20) 성균관 유생들이 보우의 죄를 청하는 상소를 올렸을 때 소본을 찬술하고⁹⁴, 1576년에는 문과 증시에도 합격한 명사로 자손 교육에 있어 소학을 특히 강조했다고 한다. 또한 그는 서천부원군

92 김희정에 대해서는 김일우, 「조선후기 이후 제주 김희정 가계의 정치·사회적 위상과 그 변화」, 『한국인물사연구』 17(한국인물사연구회, 2012)에 자세하게 분석되어 있다.

93 1891년 김희정의 집에 ‘강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문인들이 나서서 범인의 엄단을 촉구한 바 있었다. 1891년 金丁松 등이 올린 소지에는 총 50명이 연명하였는데, 이들은 ‘吾等之師’라 하여 김희정을 ‘師’로 칭하고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김희정은 최소 50명의 문도를 규합했음을 알 수 있는데(『古文書集成』 110, 801쪽, 〈所志〉(9), 802쪽, 〈所志〉(10), 806쪽, 〈稟目〉), 이는 19세기 제주유림의 학문적 집단화와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94 鄭經世, 『愚伏集』 卷17, 〈贈議政府領議政李公神道碑銘并序〉. “乙丑 文定大妃信妖僧普雨言 設無遮會于檜巖寺 經月乃罷 未幾而文定上昇 中外哄然 皆以爲病由齋素 欲禱普雨肉 於是太學生上章討罪 是時太學生名能文者甚衆 而首用公疏 聲聞益彰徹 一時名人皆慕與之交”

정곤수(鄭崑壽), 판서 이증(李增), 평성부원군 신점(申點), 문양군 유희림(柳希霖), 영의정 전양군 유영경(柳永慶), 대사간 송응개(宋應溉), 목사 송응형(宋應洞), 영의정 박순(朴淳), 해평부원군 윤두수(尹斗壽), 월정 윤근수(尹根壽), 우의정 심희수(沈喜壽), 참봉 이지남(李至男) 등 당파·학과를 초월한 교유망을 형성했는데⁹⁵, 인조반정의 원훈 연평부원군 이귀(李貴)는 그가 직접 양육한 인물이었다.⁹⁶ 그리고 아버지 이창정(李昌庭)은 사마시 및 문과를 거쳐 함경도관찰사를 지낸 정통 관료였다.

이귀는 가문의 전통을 이어 관료의 길을 걸었고, 정치적으로는 남인(近畿南人)을 표방했고, 학문적으로는 퇴계학파에 속했다.⁹⁷ 그는 남인 4선생으로 일컬어지는 조경(趙綱)·허목(許穆)·윤선도(尹善道)를 비롯하여 정두경(鄭斗卿) 등과 친교가 깊었는데⁹⁸, 허목은 퇴계·남명문인 정구(鄭逖)의 수문(首門)으로 인식되는 인물이고, 윤선도·정두경은 시장(詩章)을 통해 제주목사 부임을 격려했던 지우들이었다.⁹⁹

이귀가 목사로 재임했던 2년 1개월 동안 가장 역점을 둔 것은 민생의 개선과 교육기반의 확충이었다. 전자의 경우 부임 이후 연이은 흉년으로 민생이 악화되자 목(牧) 차원의 자구책을 모색하는 가운데 조정의 원조까지 확보함으로써 진정(賑政)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귀는 직무 의식에 투철한 목민관이었고, 1659년 소행정(素行亭)의 건립은 선정을 향한 ‘자기

95 『尊敬錄』 「延安李氏家言」 〈李澍〉.

96 『尊敬錄』 「延安李氏家言」 〈李澍〉. “延平府院君默齋李貴 余吾李氏同出延安 而於公爲姨從妹子也 生二歲而孤 且失學無依 公哀憐之 率來養于家 教之以書 遂得成立”

97 연안이씨 李昌庭 가문은 영천이씨 李民爽 家門(退溪學統), 전주이씨 李晔光 家門, 해남 윤씨 尹善道 家門(錦南·退溪學統), 한산이씨 李山海 家門(花潭·退溪學統), 풍산류씨 柳成龍 家門(退溪學統) 남인 퇴계학파 계통의 가문들과 혼맥으로도 연결되어 있었다.

98 李沃, 『博川集』 卷8, 〈從祖父通政大夫守廣州府尹公墓碣銘〉. “如沈公大孚·趙公綱·眉叟許公 皆忘年定交 亦可觀公所與也”

99 尹善道, 『孤山遺稿』 卷1, 〈送李濟州〉; 卷5, 〈送李濟州送李濟州序禱(丁酉)〉; 鄭斗卿, 『東溟集』 卷7, 〈送李濟州禱〉.

단속'의 강화 과정으로 착상된다.

불행하게도 해마다 큰 흉년을 만나게 되자 조정에 계를 올렸더니 [...] 육지의 조 2,000곡(斛)과 쌀 200곡, 소금 300곡과 본주에 팔아주는 곡식 1,000곡을 이급(移給)하라고 명하였다. 나 또한 수천 곡(斛)의 곡식을 마련하여 3읍의 기민을 진휼했다.¹⁰⁰

한편 교육기반 확충의 포부는 '학교는 왕정의 근본'이라는 기치 하에 1660년에 건립한 장수당(藏修堂)을 통해 실현되었다. 당초 향교 옆에 6간의 초가로 출범한 장수당은 제주의 대표적 초학 전문교육시설이었다. 그는 경서에 밝은 자를 훈장으로 삼아 훈육을 위임하는 가운데 초하루와 보름에는 친강(親講)을 통해 학업을 이끌었다. 그가 구상했던 교육 방침은 효율적으로 적용되어 일부 준수한 유생 중에는 칠서(七書: 四書三經) 전체를 암송하는 이도 있었다.¹⁰¹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런 흐름 속에서 김진용(金晉鏞)이 교육 공간의 확충을 건의하자 그 제안을 수용하여 성의 남쪽에 위치한 고득중(高得宗)의 구지(舊址)에 11칸 규모의 학사(學舍)로 건립한 것이 장수당이었다. 이로써 장수당은 35명의 학도가 거접(居接)할 수 있는 대형 교육시설로 그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제주지역 문풍 진작의 거점으로 기능하게 된다.¹⁰²

교육기반 확충을 위한 이씨의 노력은 학사의 건축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교육의 향구성을 위해서는 운영 자산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목(物)의 채원으로 300곡을 조성하는 한편 조정으로부터 콩 150곡, 전미(田米) 50곡,

100 李益泰, 『知瀛錄』 〈素行亭記〉(李檣撰).

101 李益泰, 『知瀛錄』 〈藏修堂記〉(李檣撰).

102 李益泰, 『知瀛錄』 〈藏修堂記〉(李檣撰).

보리 50곡, 목면(木綿) 2동의 지원을 확보하는¹⁰³ 등 지속적인 운영기반의 조성에도 열성을 다했다.

장수당(藏修堂)을 낙성하고 직접 기문을 찬술하여 그 경위를 밝힌 이피는 조경(趙綱, 1586-1669)에게 또 한 편의 기문을 부탁하였다.¹⁰⁴ 조경에게 기문을 청한 것은 명사의 글을 통해 장수당의 건립 취지 및 존재성을 제고하려는 의도에 더하여 조경이 허목과 함께 17세기 중반 근기남인학계의 영수라는 점에 또 다른 주안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즉 이피는 자신이 건립한 장수당에 조선의 다양한 학풍 중에서도 이황에게서 발원하는 퇴계학풍을 주입시키고자 했던 것이고, 그 상징적인 인물로 이황(李滉) ⇨ 정구(鄭逵) ⇨ 문위(文緯)로 이어지는 학통을 계승했던 조경(趙綱)의 존재에 주목했던 것이다.¹⁰⁵

2) 김정(金倣)·이원조(李源祚)의 목사 재임과 영남학풍의 외연 확장: 문교진흥론과 동계추양론을 중심으로

남인계는 1694년(숙종 20) 갑술환국(甲戌換局)을 통해 정치적 영락에 길에 들어서는 가운데 1728년(영조 4)의 무신란(戊申亂)을 거치면서 중앙 권력과의 괴리는 더욱 현격해졌다. 이런 현상은 영남남인계에서 더욱 두드러졌고, 그 추이를 반영하듯 18세기 이후 제주목사를 지낸 영남남인계 인사는 매우 제한적이다. 여기서는 영조조(1735-1737)와 헌종조(1841-1843)에 남인 퇴계학과 계열의 목사로서 제주의 문풍 진작을 주도한 김정(金倣, 1670-1737)과 이원조(李源祚, 1792-1872)를 통해 영남학풍의 유입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103 李益泰, 『知瀛錄』, 〈藏修堂記〉(李繪撰).

104 李益泰, 『知瀛錄』, 〈藏修堂記〉(趙綱撰).

105 趙綱은 거창의 학자 文緯를 사사했고, 문위는 鄭逵의 문인이었다. 정구는 이황과 조식을 아울러 사사하였으나 文緯 ⇨ 趙綱 계통은 정구를 退溪門人으로 인식했다.

김정이 제주목사에 부임한 것은 1735년(영조 11) 4월이었다. 제주는 1734년부터 흉년이 들어 다수의 기민이 발생하는 가운데 1734년 목사 정도원(鄭道源)이 사망함으로써 행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다. 더욱이 신임 목사에 임명된 김중희(金重熙)가 부임을 거부하다 정배(定配)되는 등 제반 상황이 매우 악화되었다.¹⁰⁶ 이에 조정에서는 김정을 목사로 발탁하였는데, 여기에는 함경도사, 옥천군수, 강릉부사, 원주목사, 강계부사 등 여러 고을의 수령을 거치면서 치적을 쌓았던 김정의 관료적 역량에 대한 국왕 및 대신들의 판단이 작용하였다.

영주 출신의 김정은 증조 김응조(金應祖)가 류성룡(柳成龍)과 장현광(張顯光)의 문인이었고, 외가는 퇴계문인 금난수(琴蘭秀) 가문이었으므로 전형적인 퇴계학파였다. 특히 김응조는 장현광의 고제집단인 '여문십현(旅門十賢)'의 한 사람이란 점에서¹⁰⁷ 그는 가학을 통해 여현학(旅軒學)의 실용적 측면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었다. 이런 배경 위에서 김정은 도산서원을 출입하며 학문 및 교유의 폭을 확장했고, 약관의 나이인 1692년에는 당시 영남학파의 영수로서 산림으로 징소된 이현일(李玄逸)이 조정에 천거했을 정도로 학행이 뛰어났다. 아울러 숙종조 근기남인의 석학이었던 정시한(丁時翰)과도 사제관계를 맺음으로써¹⁰⁸ 영남학과 기호학을 통섭하는 학문적 외연을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김정은 부임 이후 목민(牧民)들에게 『경민편(警民編)』을 보급하여 치화(治化)의 본령을 환기시키는¹⁰⁹ 한편 교육 공간의 확충을 통해 문교 진흥에 부심하게 된다. 그 일환에서 모색된 것이 삼천서당(三泉書堂)의 건립이었다. 서당의 건립은 물력의 조달을 전제하였지만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 재원

106 金倣, 『蘆峯集』 卷4, 附錄 〈家狀〉(玄孫 宗傑撰).

107 김학수(2008), 앞의 논문.

108 金倣, 『蘆峯集』 卷4, 附錄 〈墓誌銘〉(權載大撰).

109 金倣, 『蘆峯集』 卷2, 〈教諭一島民人文〉, 〈重爲告諭文〉.

마련이 쉽지 않았다. 이에 김정은 쌀 50석, 목면 2동을 출연하여 총 22칸 규모에 20명의 유생이 거접할 수 있는 서당을 낙성하고 삼천서당이라 명명했다.¹¹⁰ 서당에는 강장(講長: 塾師)이 거처하는 존현당(尊賢堂)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사(師)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나아가 그는 서당의 본원적 작동을 위해 학령(學令)을 세워 교육 과정의 엄정성을 기하는 한편 쌀 50석과 목면 2동의 재원을 서당에 지원하여 서당 운영의 항구성을 도모했다.¹¹¹ 삼천서당의 건립과 운영은 1578년 충암묘(橋林書院), 1660년 장수당의 이후 제주지역 최대의 교육사업의 하나로 꼽을만큼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삼천서당은 문(文: 文詞)에 치중했던 관학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기성(既成) 유생들의 교육에 중점을 두었던 서원 교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데 주안점이 있었던 것이다.¹¹² 즉, 김정은 기존 유생들의 교육 못지 않게 후속 세대인 동몽(童蒙) 교육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던 것이다. 이 점에서 삼천서당은 교육의 대중화라는 유학 본연의 교육관의 구체적 실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흥학론에 바탕한 김정의 선정은 제주 목민들에게 깊이 각인되었고, 1819년에는 이형상(李衡祥)과 함께 상현사(象賢祠)¹¹³에 제향되었다.

110 金倣, 『蘆峯集』 卷4, 附錄 〈家狀〉(玄孫 金宗傑撰).

111 金倣, 『蘆峯集』 卷4, 附錄 〈墓誌銘〉(權載大撰).

112 金倣, 『蘆峯集』 卷3, 〈寒泉書堂上樑文〉.

113 象賢祠의 본명은 鄉賢祠였다. 1668년 목사 이인이 그의 조상으로 제주목사를 지낸 바 있는 李約東을 橋林書院에 추배했으나 1675년 巡撫使 李選에 의해 출향됨으로써 李約東·李繪를 위한 別祠 형태로 운영된 것이 象賢祠였다. 임시 건물로 유지되던 象賢祠가 격식에 맞게 건립된 것은 李益泰가 목사로 재임하던 1695년이었고, 1702-1703년 목사였던 李衡祥이 象賢祠로 개칭하였다. 이후 1819년에 李衡祥과 金倣이 추배되고, 1831년에는 본 고을 출신으로 문명이 높고 이과와 협모하여 藏修堂을 건립한 金晉鏞을 추배함으로써 5인의 제향처로 굳어졌다. 제향 인물 및 그 후손들의 성격을 고려할 때, 象賢祠는 남인계 사우로 규정할 수 있다.

김정에 의해 기틀을 다진 영남의 퇴계학풍은 1841년 제주목사로 부임한 이원조(李源祚)에 의해 보다 확산을 기하게 된다. 성주 출신인 이원조는 7대조 이정현(李廷賢)이 정구의 문하를 출입하여 퇴계 ⇨ 한강학통을 이었고¹¹⁴, 자신은 22세 되던 1813년(순조 13) 서애학통(西厓學統)의 적전 정경세의 6세손 정종로(鄭宗魯, 1738-1816) 문하에서 수학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퇴계학과 중에서도 한강(寒岡: 鄭述)·우복문파(愚伏門派: 鄭經世)와의 학맥적 관계성이 두드러지는 것은 사실이다. 1821년 정종로의 증작(贈爵)을 청하고¹¹⁵, 1824년 정구(鄭述)의 문묘중사를 청하는 상소를 올리는 등 학맥 천양을 위해 노력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학문적 다양성을 중시했던 그는 병산(屏山)·도산(陶山)·호계서원(虎溪書院) 등 영남 선학들의 유적 심방에 적극적이었고, 1820년(순조 20)에는 이황의 10세손 이휘녕(李彙寧)과 서울에서 『퇴계집(退溪集)』을 강독하는 등 퇴계학에 대한 계승의식 또한 매우 높았다.

목민관으로서의 이원조의 역할은 선행 연구를 통해 비교적 자세하게 규명되었으므로¹¹⁶ 여기서는 문풍 또는 학풍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언급할 것은 삼천서당(三泉書堂)의 중수이다. 삼천서당이 건립된 것은 1735년이고, 이원조가 목사로 부임한 것은 1841년이다. 약 100년의 시간적 경과를 건물의 퇴락을 수반했고, 이를 목도한 이원조는 중수를 결심하게 된다. 그의 중수론은 크게 두 가지 취지를 내포하고 있었다. 하나는 삼천서당의 기능성에 대한 인정이고, 다른 하나는 김정

114 李源祚, 『凝窩集』 卷20, 〈先考通訓大夫行司憲府掌令農棲府君行狀〉. “歷四代至諱廷賢承文院正字號月峯 早遊寒岡鄭先生門 以高弟稱 不幸業未究 纔釋褐而塲”

115 李源祚, 『凝窩集』 卷5, 〈引年告退 兼請大山立齋兩先生贈爵疏(辛酉)〉.

116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응와 이원조의 삶과 학문』(역락, 2006); 손기범, 「제주를 바라보는 19세기 유학자의 관점: 이한우, 김정희, 이원조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17, 영주어문학회(2009).

(金傲)에 대한 계승의식이다. 먼저 후자의 경우 '삼천서당중수기(三泉書堂重修記)'에서 김정을 '우리 영남의 선진(先進)'¹¹⁷으로 일컬은 데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삼천서당의 생도들로부터 들은 창건 당시의 사적을 특서한 것도¹¹⁸ 존중 또는 계승의 표명이었다.

한편 이원조는 삼천서당을 교생·원생으로서의 학적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 상대적으로 취약한 조건 속에서도 학업적 성취는 교생(校生)·원생(院生)에 비해 조금도 뒤처지지 않는 인재를 배출하는 교육시설로서의 존재 가치를 인정했던 것이다.¹¹⁹ 이것이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서당 중수를 강행한 이유였다.

삼천서당 중수에 이어 이원조가 주목했던 것은 존현사업이었다. '존현(尊賢)'은 곧 유교적 교육론의 한 형태였고, 그 대상으로 설정된 인물은 1614년부터 1623년까지 대정현에서 적거했던 정온(鄭溫)이었다. 정온은 남명문인 정인홍·정구의 제자였으므로 한강학맥(寒岡學脈)이라는 측면에서 이원조와 학문적 연원이 같았다.

정온을 대상으로 하는 존현사업은 적거지에 유허비(遺墟碑)를 세우는 것을 시작으로 주향처(主享處)로서의 송죽서원(松竹書院)을 건립하는 것에서 마무리되었다. 당초 이원조는 부임 직후 굴림서원에서 정온의 위패를 봉심한 바 있다. 무엇보다 적거지에 대정현감 부종인(夫宗仁)이 서재를 건립,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 감동하여 유허비를 세워 정온의

117 李源祚, 『凝窩集』 卷14, 〈三泉書堂重修記〉. “蘆峯金公 吾嶺之先進也 屢典州郡 所至有文翁常袞之績”

118 李源祚, 『凝窩集』 卷14, 〈三泉書堂重修記〉. “余莅耽羅 距公財百餘年 首訪公遺蹟 既謁公祠于橋林 退坐三泉書堂 與齋之諸生語 諸生皆州里之秀 稱說公初始時事 儘乎其得教導之要也”

119 李源祚, 『凝窩集』 卷14, 〈三泉書堂重修記〉. “蓋島俗荒陋 儒學貿貿 青衿分案之後 校院生各有依歸之所 而外此則靡所接托 雖有向學之心 蔑蔑乎勸督興起之實 此書堂之所以設也 其後通經能文之士 與校院不相軒輊 而占解額登上庠者 邈邈多出於其中 此古者大小學之遺意 而其效之不可誣如此”

덕의(德義)와 명절(名節)을 크게 현창하게 된다.¹²⁰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원조는 정온의 외손 계열이었던 바, 그가 주관했던 입비(立碑) 사업은 사정(私情)의 표현으로 폄하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그가 비문의 말미에서 유허비의 건립은 공적 존모(尊慕)의 표명일 뿐 사사로 온 정리(情理)의 드러냄이 아님을 애써 강조한¹²¹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어떤 측면에서 유허비의 건립은 원향론을 점화하는 예비 절차일 수 있었다. 그는 입비(立碑)와 동시에 서원 건립에 착수하였는데, 부종인이 적거지에 건립한 서재가 그 기반이 되었다. 즉, 당시 서재는 교육 및 제향 기능을 겸하고 있었는데, 이원조는 이를 서원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했던 것이다. 원우의 건립은 오로지 이원조의 기획 속에 추진되어 부임 이듬해인 1842년 완료되었으며, '상량문(上樑文)', '기문(記文)', '봉안문(奉安文)' 등의 주요 예식문자도 그가 직접 찬술했다.¹²²

'송죽서원'이란 원호는 정온의 시어(詩語)에서 취한 것이었는데, 이원조는 '송죽서원기' 및 '봉안문'에서 건원(建院)·설향(設享)의 취지를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송죽서원기' _ 이원조

내가 직접 '송죽서원(松竹書院)' 네 대자(大字)를 써서 걸었으니, 선생이 부처

120 李源祚, 『凝窩集』 卷18, 〈桐溪鄭先生謫廬遺墟碑〉. “知縣夫侯宗仁 因其址闢書齋 俾居儒士 夫本土人 爲政而知所先後 可嘉也已 [...] 嗚呼 先生德義名節 與天地并立 遺蹟所在 人皆敬慕”. 정온의 『桐溪年譜』 〈辛未〉(1691)에 따르면, 1691년 봄 제주 유생들이 서울로 정온의 손자 鄭岐胤을 찾아와 굴림서원 보관용으로 『桐溪集』을 요청했을만큼 정온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깊었다. 夫宗仁이 적거지에 서재를 건립한 것도 이런 정서의 표현이었다.

121 李源祚, 『凝窩集』 卷18, 〈桐溪鄭先生謫廬遺墟碑〉. “余於先生爲外裔 慕先生 公耳 何敢私”

122 李源祚, 『凝窩集』 卷4, 〈桐溪祠上樑文〉; 卷14, 〈松竹書院記 壬寅在耽羅時〉; 鄭蘊, 『桐溪集』 續集 卷3, 〈松竹書院奉安文(李源祚撰)〉.

보내 준 시어(詩語)에서 취한 것이다. 아, 선생의 절의는 온 세상이 만세토록 보존해야 할 가치인 바, 제주라는 한 섬이 사사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에 지금 한 조각의 돌과 몇 칸의 집으로써 선생의 유허를 표시하고, 또 구구한 송죽(松竹)으로써 서원의 이름을 삼아 선생의 미덕을 드러내는 것은 너무 부족하지 않겠는가.¹²³

‘송죽서원봉안문’_이원조

於惟先生 우리 선생께서 배양하신
 德義名節 덕의와 명절이여
 一生成就 평생에 성취한 것은
 萬古卓絶 만고에 비길 데 없이 탁월했네
 人獸華夷 사람과 짐승, 화이를 변별하고
 天彝物則 천리와 물칙을 밝혔으니
 苟微先生 참으로 선생이 아니었더라면
 奈何東國 이 땅은 어떤 지경에 빠졌을까
 松竹之詩 송죽을 노래한 시는
 遺蹟是諗 귀양살이 하던 자취를 생각하신 것임에
 牧守豎碑 수령이 이곳에다 비석을 세우니
 尤激于心 더욱 마음 속에 격앙되네
 莫曰荒貿 제주를 거친 곳이라고 말하지 말라
 先享橘林 당초에는 굴림서원에 위패를 봉안했고
 因墟立廟 이제는 유허에다 사당을 세우고
 陞齋爲院 서재를 승격하여 서원으로 삼았네
 藏修揭虔 장수와 제향은
 意義兩襯 양사와 존현의 살가운 조합일지니¹²⁴

123 李源祚, 『凝窩集』 卷14, 〈松竹書院記 壬寅在耽羅時〉.

124 鄭蘊, 『桐溪集』 續集 卷3, 〈松竹書院奉安文(李源祚撰)〉.

즉 이원조는 절의론적 관점에서 정온을 추앙하기 위해 송죽서원을 건립했던 것이고, 그 절의는 제주라는 하나의 섬이 사유(私有)할 수 없을만큼 광대한 공공적 가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원조는 자신의 정온 현양론이 사적 관계성의 발로가 아님을 피력하고 있지만 행간에 흐르는 정서가 '주자학적 절의의 표창'에 더하여 '영남학풍의 외연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¹²⁵

V. 맺음말

조선시대 제주의 유교적 지식·문화의 보급과 정착을 견인한 존재는 제주목사·판관 및 정의·대정현감 등의 관인과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유배를 온 지식인들이었다. 이런 흐름은 15세기 이후 사림파의 성장과 더불어 본격화 되었는데, 1470년부터 1473년까지 목사로 재임하며 주자학적 치도 기반을 조성했던 이약동(李約東)의 역할은 유교문화 확산의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1519년의 기묘사화(己卯士禍)는 사림의 시련인 동시에 새로운 도약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 영향은 제주에까지 미쳤는데, 1520년 김정(金淨)의 제주 유배가 그것이었다. 정통 사림파 학자·관료였던 김정은 1년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제주의 문교(文教) 및 예교(禮敎) 진작에 크게 기여했고, 그가 육성했던 문인들은 지적(知的) 자산으로 남아

125 이와 관련하여 이원조는 교생들의 교육지침으로 '朔講節目'을 제정하여 운영했는데, 이는 정구가 檜淵草堂에서 문인들을 교육하기 위해 마련한 '通讀會儀' 및 '講法'의 응용이었다(鄭述, 『寒岡集』續集 卷4, 〈通讀會儀〉, 〈講法〉). 이를 통해서도 제주유림 교육에 영남학풍을 적용코자 했던 이원조의 의도를 감지할 수 있다.

제주 문풍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게 된다. 김정이 이른바 제주오현의 수현으로 일컬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이약동·김정을 통해 기반을 다진 제주의 유교적 교화 및 교육론은 송인수(宋麟壽)·심연원(沈連源) 등의 관인을 통해 더욱 진전을 보게 된다. 이들은 사림과 학통의 정통 계승자였으며, 특히 김안국의 문인이었던 심연원은 ‘모재학(慕齋學)’은 물론 최부의 금남학풍까지 이식함으로써 제주의 학문적 풍토를 보다 풍부하게 했다.

1578년 김정의 사우로 건립된 ‘충암묘(冲庵廟)’는 제주문화의 주자학적 기치(旗幟)이자 향후 제주학풍의 구심점이 되었다는 사상·문화사적 변곡점을 이루게 되는데, 이런 흐름을 주도한 것은 성운의 문인계열인 대곡학통(大谷學統)이었다. ‘충암묘’는 17세기 중반 퇴계(退溪)·화담학통(花潭學統)의 공조 속에 굴림서원으로 승격되어 그 위상을 신장하는 가운데 송인수(宋麟壽)·김상헌(金尙憲)·정온(鄭蘊) 및 송시열(宋時烈)의 추배를 통해 이른바 제주5현의 제향처로 자리매김하면서 상당한 중량감을 확보하게 된다. 이들 5현이 접했던 조선유학사에서의 위상을 고려할 때, 굴림서원은 육지의 어느 서원에도 뒤지지 않는 제주 유학의 수선지(首善之地)로 존재하게 되었던 것이다. 1695년 제주목사 이익태에 의해 이루어진 송시열의 굴림서원 추배는 제주학풍의 무게 중심이 기호학맥 쪽에 실리는 계기가 되었고, 이런 흐름은 19세기 후반까지 큰 변화없이 유지되었다.

제주의 주자학적 학풍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은 비단 5현만이 아니었다. 제주와 서인 기호학과 및 남인 영남학과와의 학문적 유대는 17세기 이후 더욱 활성화 되었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인물을 통해 학풍이 유입되었다. 1618년 폐비론에 반대하다 유배된 기호학과 계통의 이익(李翼)은 김진용(金晉鎔)·고홍진(高弘進)·김계창(金繼昌) 등 다수의 문인을 육성하여 제주 유학의 저변을 확대했고, 19세기 중후반의 유배지식인이었던 김정희(金正喜)·최

익현(崔益鉉) 또한 문도 교육을 통해 기호학풍을 끊임없이 유입시켰다.

이런 경향은 남인 퇴계학과 계열에서도 나타났다. 1658년부터 1660년까지 목사로 재임했던 이괴(李繪)는 장수당을 건립하여 교육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문자행위’를 통해 퇴계학풍의 확대에 주력했다. 이런 흐름은 영조 연간인 김정(金倣), 헌종 연간인 이원조(李源祚) 등 남인계 관료를 통해 계승, 발전되었다. 전형적인 퇴계학맥이었던 김정은 삼천서당(三泉書堂)을 건립하여 교육의 실질성을 제고했고, 이원조는 삼천서당의 중수와 송죽서원(松竹書院)의 건립을 통해 김정의 교육사업을 확대, 강화시켰다. 특히 송죽서원의 건립은 교육사업에 더하여 정은 추양사업의 일환에서 추진된 것이었는데, 그 바탕에는 제주라는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영남학의 확산의 과정이기도 했다.

원우에 기준할 때, 5현을 제향한 굴림서원이 서인 기호학파의 주도성이 강한 공간이었다면 정은의 주향처인 송죽서원(松竹書院)과 이약동(李約東)·이괴(李繪)·이형상(李衡祥)·김정(金倣)·김진용(金晉鏞)의 제향처인 상현사(象賢祠)는 남인 퇴계학파의 영향이 큰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구조에서 볼 때, 향후 제주지역의 학풍은 크게 ‘굴림학풍(橋林學風)’과 ‘송죽(松竹)·상현학풍(象賢學風)’으로 대별하여 파악해 볼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光海君日記』, 『肅宗實錄』, 『英祖實錄』.

洪直弼, 『梅山集』.

姜希孟, 『私淑齋集』.

金淨, 『冲庵集』.

李元鎮, 『耽羅誌』.

李廷龜, 『月沙集』.

曹植, 『南冥集』.

宋麟壽, 『圭菴集』.

李楨, 『龜巖集』.

鄭士龍, 『湖陰集』.

朴世采, 『南溪集』.

洪暹, 『忍齋集』.

林悌, 『林白湖集』.

宋時烈, 『宋子大全』.

成運, 『大谷集』.

『耽羅誌草本』.

金尙憲, 『清陰集』.

『書院臚錄』.

李益泰, 『知瀛錄』.

崔益鉉, 『勉菴集』.

宋煥箕, 『性潭集』.

尹拯, 『明齋遺稿』.

吳始壽, 『水村集』.

朴光一, 『遜齋集』.

崔錫鼎, 『明谷集』.

鄭經世, 『愚伏集』.

『尊敬錄』.

李沃, 『博川集』.

尹善道, 『孤山遺稿』.
鄭斗脚, 『東溟集』.
金倣, 『蘆峯集』.
李源祚, 『凝窩集』.
鄭蘊, 『桐溪集』.
鄭逵, 『寒岡集』.
申碩蕃, 『百源集』.
尹鑑, 『白湖全書』.
『古文書集成』 110.
『古文書集成』 114.

2. 단행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응와 이원조의 삶과 학문』. 역락, 2006.
신병주, 『남명학과와 화담학과 연구』. 일지사, 2000.
李秉然, 『朝鮮前期 畿湖士林派 研究』. 一潮閣, 1984.
조성산, 『조선후기 洛論系 學風의 형성과 전개』. 지식산업사, 2007.

3. 논문

손기범, 「제주를 바라보는 19세기 유학자의 관점: 이한우, 김정희, 이원조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17, 영주어문학회, 2009, 99-119쪽.
김영란, 「조선시대 제주목사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차 발표 요지(한국학중앙연구원 문형관 B107호, 2019.11.07).
김인기, 「조선후기 면암 최익현이 제주교육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김일우, 「조선후기 이후 제주 김희정 가계의 정치·사회적 위상과 그 변화」. 『한국인물사연구』 17, 한국인물사연구회, 2012, 277-321쪽.
김학수, 『17세기 嶺南學派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이희환, 「肅宗과 己巳換局」. 『全北史學』 8, 1984, 127-167쪽.
전지선, 「조선전기 冲庵 金淨의 제주사회 인식과 교화활동」.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국문초록

이 글은 조선시대 제주지역 유교 지식(知識)·문화(文化)의 보급 및 확산 양상을 사상 및 문화사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제주문화의 실상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기 위해 지식·문화의 수수(授受)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인간’의 실체와 그 역할, 제주로 유입·정착되었던 지식과 문화의 계통성에 주목했다. 특히 지식과 문화의 양성(釀成) 주체로서의 인간을 제주목사 등 ‘관료’, 김정(金淨) 등 ‘유배지식인’, 김양필(金良弼) 등 ‘현지지식인(土着儒教知識人)’으로 구별하여 그 개체의 문화사적 역할 및 의미를 강조한 것과 후일 제주학풍의 원천이 되는 지식·문화의 계통을 조선 주자학의 제 갈래 중에서도 ‘기호학(畿湖學)’과 ‘퇴계학(退溪學)’의 양측적 영향성에 초점을 맞춘 것은 기존 연구와 일정한 차별성을 갖는다. 무엇보다 제주지역 학풍의 갈래와 성향에 대한 천착은 향후 제주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관한 다채로운 연구를 풍부하게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투고일 2020. 6. 22.

심사일 2020. 7. 22.

게재 확정일 2020. 7. 29.

주제어(keyword) 제주(Jeju), 유교(Confucianism), 주자학(Neo-confucian study), 예교(Ritualism), 지식(Knowledge), 문화(Culture), 김정(Gim Jeong), 충암묘(Chungam Shrine), 굴림서원(Gyullimseowon), 오현(Five Worthies), 학풍(Academic tradition), 기호학(Giho School), 퇴계학(Toegye School)

Abstracts

A Study on the Acceptance of Confucian Knowledge and Culture in Jeju and Academic Tradition of Jeju: Focused on Neo-Confucian Ritualism and the Introduction and Application of Neo-Confucian Literati Academic Tradition

Kim, Hak-su

This article analyzes the dissemination and spread of Confucian knowledge and culture in Jeju during the Joseon Dynasty from the perspective of ideology and cultural history. In order to expand the understanding of the reality of Jeju culture, it was noted that ‘human’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acceptance of knowledge and culture, and the systemicity of knowledge and culture that had been introduced and settled into Jeju. In particular, the emphasis on the cultural historical role and meaning of the object by distinguishing human beings as “officials,” “exiled intellectuals,” and “local intellectuals,” and focusing on the two-sided influence of “Giho School[畿湖學]” and “Toegye School[退溪學]” among the branches of Neo-Confucian study in Joseon, which later served as a source of Jeju academic tradition, have a certain distinction from existing research. Above all, the scrutiny of Jeju academic tradition will be the catalyst for various studies on the universality and specificity of Jeju culture in the future.

